

# Annual Report 2011

The driving force  
that moves us forward

믿음으로 함께

CONTENTS

- 04 주요지표 및 재무요약
- 05 주요성과 및 수상내역
- 06 회장 인사말
- 08 CEO 인터뷰
- 12 경영진 및 사외이사
- 14 OPERATION REVIEW
- 36 FINANCIAL REVIEW
- 66 사업단장 및 본부장
- 68 회사 연혁
- 69 조직도
- 70 CORPORATE DATA

CORPORATE IDENTITY



2010년 대신증권은 '신뢰'와 '상생'의 기업철학을 담은 새로운 CI를 선보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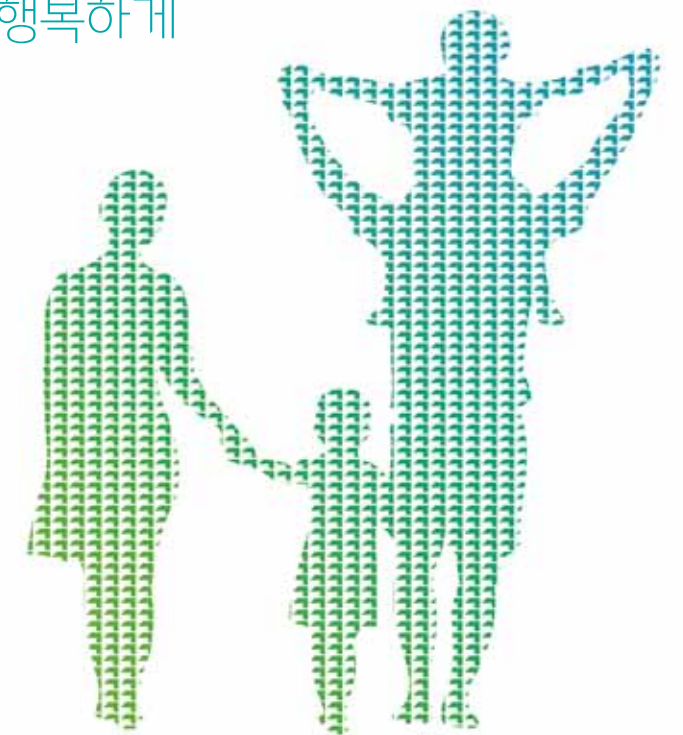
심플하고 직선적인 느낌의 심볼은 금융그룹으로서의 전통과 신뢰를 보다 견고히 보여주며, 두 손으로 감싸는 듯한 구조의 형상은 고객과 대신증권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겠다는 '상생'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신뢰'에 기반한 기업정신은 지난 반세기 동안 대신증권을 이끌어 온 원동력입니다. 고객중심경영과 철저한 리스크관리를 통해 대한민국 금융산업의 중심에서 금융전문기업으로 성장해 온 대신증권. 지난 50년의 성공을 발판으로 '상생'의 가치를 더함으로써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실된 금융주치의로서 고객과 동행하는 신뢰받는 아름다운 기업」  
고객과 주주가 함께 성장하기 위한 대신증권의 비전입니다.**

# Trust & Harmon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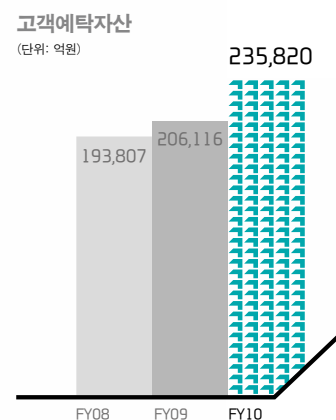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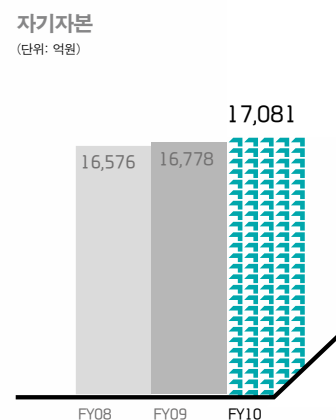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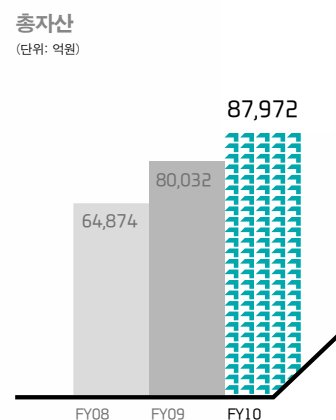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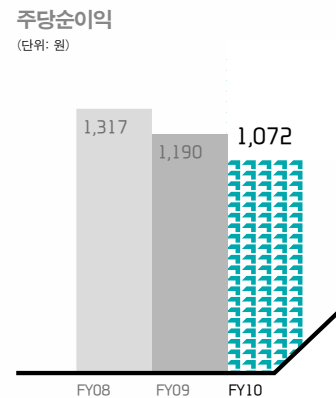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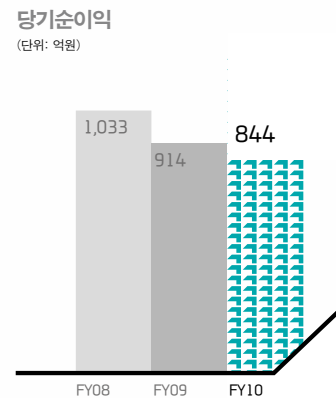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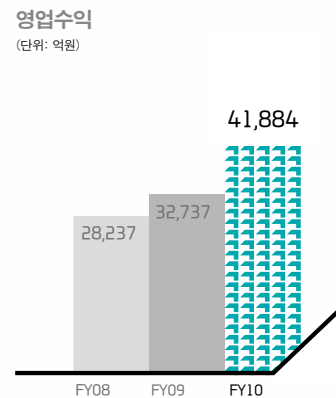
대신증권은 금융에 대한 균형 있는 시각으로  
고객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 갑니다.



## 주요지표 및 재무요약

	(단위: 백만원)		(단위: 천달러)	
	FY10 2011년 3월	FY09 2010년 3월	FY10 2011년 3월	FY09 2010년 3월
영업수익	₩ 4,188,383	₩ 3,273,708	\$ 3,782,861	\$ 2,895,037
영업비용	4,106,195	3,100,879	3,708,630	2,742,200
영업이익	82,189	172,829	74,231	152,838
법인세비용차감전 순이익	110,461	149,041	99,766	131,801
당기순이익	84,408	91,356	76,236	80,788
총 자산	8,797,154	8,003,171	7,945,406	7,077,442
총 부채	7,089,049	6,325,402	6,402,682	5,593,741
자본총계	1,708,105	1,677,769	1,542,725	1,483,701
주당순이익 (단위: 원, 달러)	₩ 1,072	₩ 1,190	\$ 0.97	\$ 1.05

주) 2011년 3월 31일 미국 환율 ₩1,107.20/USD와 2010년 3월 31일 미국 환율 ₩1,130.80/USD 를 적용함.



## 주요성과 및 수상내역

**01**  
2010. 05. 26  
2010 글로벌스탠다드 경영대상 - 정보 보안경영 부문 대상

한국능률협회와 한국능률협회인증원이 주최하는 글로벌스탠다드 경영대상에서 대신증권이 글로벌스탠다드 경영대상 정보 보안경영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02**  
2010. 06. 11  
2010 글로벌 고객만족도 증권부문 4년 연속 1위 수상

대신증권이 일본능률협회컨설팅 주관으로 개최된 '2010 글로벌 고객만족도(GCSI)' 증권부문에서 4년 연속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04**  
2010. 11. 02  
'오아시스 (OASIS)' 오픈

대신증권이 개인투자자들을 위해 종목 및 상품 선정부터 보유주식에 대한 사후관리까지 주식투자의 모든 단계에 걸쳐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위험 관리 서비스인 '오아시스(Organized Attractive Simple Investment System)'를 선보였습니다.



**08**  
2011. 03. 16  
대신증권글로벌스탠다드 업계 최초 합병 승인

대신증권글로벌스탠다드 터치스크린 패널 제조 기업인 썬텔과의 합병을 위해 국내 증권업계 최초로 스펙 합병 승인을 금감원으로부터 받았습니다.

**09**  
2011. 03. 25  
GBCI 글로벌 브랜드 증권사 부문 1위

산업계의 브랜드 경쟁력을 측정하는 국제지표 GBCI(Global & Great Brand Competency Index) 평가에서 대신증권이 글로벌 브랜드 증권사부문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03**  
2010. 09. 05  
인도네시아 만다리증권과 전략적 제휴 체결

최근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인도네시아 증권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위해 대신증권은 현지 만다리증권과 전략적 제휴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05**  
2010. 12. 16  
Web Award Korea 2010 증권부문 대상 수상

대신증권이 최근 개편한 홈페이지 웹사이트(www.daishin.com)가 국내 최고권위의 인터넷 평가 시상식인 '웹어워드 코리아 2010'에서 증권부문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10**  
2011. 04. 06  
인도네시아 온라인 위탁매매시장 진출

대신증권이 국내 최초로 인도네시아 만다리증권과 HTS 프로그램을 개발해주고 매매 수수료를 배분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인도네시아 온라인 주식거래시장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06**  
2011. 02. 08  
싱가포르 및 홍콩에서 글로벌 컨퍼런스 개최

대신증권이 싱가포르와 홍콩에서 국내 대표기업들이 참여한 가운데 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대신 인베스터스 컨퍼런스(Daishin Investors Conference)'를 개최하였습니다.

**11**  
2011. 04. 29  
2011년 헤럴드 자본시장대상 수상

헤럴드경제가 제정한 '2011년 헤럴드 자본시장대상'에 대신증권이 선정되었습니다. 대신증권은 오랜 전통과 탁월한 위험관리, 경영혁신 등에서 성과를 인정받아 최고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07**  
2011. 02. 16  
국내최저 온라인 증권거래 서비스 '크레온' 출시

대신증권이 0.011% 국내최저가 온라인 주식거래수수료의 은행연계 온라인 증권거래서비스인 '크레온(CREON)' 서비스를 출시하였습니다.

# 회장 인사말



진실된 금융주치의로서  
고객과 동행하는 대신증권은  
‘재무적 성장’  
‘운영효율성 제고’  
‘관계관리 강화’라는  
3대 전략 주제를 실현함으로써  
신뢰받는 아름다운 기업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대신증권 주주여러분!

지난 회계연도는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로 국격이 향상되고, 금융위기로 추락했던 코스피 지수가 2,000 포인트를 회복하는 등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일들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유로존을 비롯한 선진국 금융시장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연평도 사태로 촉발된 남북 긴장 극대화화 동일본 대지진 등으로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진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존경하는 주주여러분!

대신증권은 이러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임직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고객을 위할 줄 아는 진정한 신뢰기업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미래를 향한 힘찬 도약의 의미를 담아 지난 회계연도에 CI(Corporate Identity)를 변경하여 ‘Trust & Harmony’라는 대신증권의 정체성을 대내외에 선포하였습니다. 대신증권의 우수한 IT역량을 기반으로 만디리증권과 제휴하여, 인도네시아 위탁매매시장에 진출하는 쾌거도 이룩하였습니다. ‘크레온’ 브랜드로 온라인 트레이딩 시장에도 적극 대응하였고, ‘꼬박꼬박 월지급형 상품’과 ‘빌리브 2차 서비스’ 출시 등 자산관리 서비스도 강화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대신증권은 일본능률협회컨설팅으로부터 글로벌 브랜드 증권부문 4년 연속 1위에 선정되었고, 헤럴드경제가 주관하는 ‘2011 자본시장 대상’에서 금융위원장 상인 ‘자본시장 대상’에 선정되는 등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존경하는 주주여러분!

대신증권 임직원은 주주여러분의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에 보답하고자 각자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이러한 전 임직원의 뜨거운 열정과 각고의 노력으로 이룩한 지난 사업년도의 경영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부문별 영업실적을 살펴보면, 전체 영업수익 4조 1,884억원 중, 수수료 수익으로 3,118억원을 시현하였으며, 유가증권 평가 및 처분 이익으로 2조 5,424억원, 그리고 파생상품 거래이익으로 9,395억원 등을 시현하였습니다.

손익실적을 보고 드리면 영업수익 4조 1,884억원, 영업비용 4조 1,062억원으로 영업이익 822억원을 시현하였으며, 영업외수익 339억원, 영업외비용 56억원으로, 법인세차감전순이익 1,105억원과 844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영성과를 바탕으로 보통주와 2종 우선주는 주당 750원, 1종 우선주는 주당 800원의 배당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로써 저희 대신증권은 대형 증권회사 중에서 유일하게 13년 연속 배당을 실시하는 회사가 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저희 대신증권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주주여러분과의 약속을 이어가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회계연도에도 지속적 성장 추진과 철저한 손익관리를 통해 주주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전 임직원이 합심하여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주주여러분!

이번 회계연도의 경영환경은 지난 해에 이어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환경을 보면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 경제의 회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신흥국 중심의 경제 성장은 인플레이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국내 금융시장도 경쟁은 치열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 한국형 헤지펀드 출사가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이는 등 규제 완화를 통한 새로운 기회가 예상됩니다. 각 금융기관의 해외진출도 더욱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며, 금융지주사 중심의 대형 M&A도 예상됩니다.

이러한 국내외 환경과 업계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대신증권은 ‘재무적 성장’, ‘운영효율성 제고’, ‘관계관리 강화’라는 3대 전략 주제를 설정하고, 이를 통해 ‘대신은 진실된 금융주치의로서 고객과 동행하여, 신뢰받는 아름다운 기업이 되겠습니다’라는 비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위탁영업 기반을 공고히 하고 자산 기반을 확대하면서 고유자산 운용 역량을 강화하여 손익과 성장을 동시에 추구할 것입니다. 이를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주요 4개 사업 부문을 사업단으로 구성하여 책임 경영을 시행하고, 내부 제도 개선을 통해 전략의 실행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 서비스를 한층 업그레이드하여 고객관계 관리를 강화함은 물론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들이 회사를 더욱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일하고 싶은 회사’로서의 터전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저희 임직원은 이러한 노력을 통해 대신증권이 고객·주주·회사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위대하고 아름다운 회사’로 거듭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주주여러분께 다시 한번 약속 드립니다.

그동안 보내주시는 주주여러분의 신뢰와 성원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을 부탁 드립니다. 아울러, 주주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대신증권 회장  
이 어 룡

# CEO 인터뷰



대신증권은 장기적인 생존 및 성장기반 강화를 위해 고객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영업 및 업무 프로세스를 혁신해 오고 있습니다.

## Q1. 올해 가장 중점을 두는 사업분야와 사업전략은 무엇인지요?

대신증권은 장기적인 생존 및 성장기반 강화를 위해 고객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영업 및 업무 프로세스를 혁신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분야와 사업전략은 크게 네 가지로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리테일부문의 강화입니다. 대신증권의 강점인 위탁영업부문을 강화하여 자산부문에 대해서도 확실한 기반을 만드는 것이 올해 가장 중점을 두는 전략방향입니다. 이에 대신증권은 고객 맞춤형 리스크관리 및 자산관리 서비스인 '금융주치의'를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고객가치를 올릴 수 있는 서비스에 집중할 것입니다. 상품, 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고객이 모든 자산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신뢰관계를 쌓아나기는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자본 운용강화를 통한 수익성 증대입니다. 최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고, 파생상품시장 등 다양한 상품시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자본 투자에서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대신증권은 이러한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헤지펀드 등 전략적 자산운용부문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원으로 육성할 것입니다.

세번째는 해외시장에 대한 비중을 높여 진출할 예정입니다. 최근 대신증권은 해외 현지 증권사와 위탁매매 수수료 수익을 배분하는 비즈니스 모델로 국내 금융투자업계 최초로 인도네시아 온라인 주식거래시장에 진출했습니다. 이번 제휴는

대신증권의 선진 온라인 거래 노하우와 시스템을 바탕으로 이뤄낸 큰 성과였습니다. 대신증권이 보유하고 있는 선진화된 금융 IT기술과 온라인 사업 노하우를 접목하여 해외시장을 개척한 사례입니다. 앞으로도 그동안의 해외시장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하고, 이를 통한 신규 수익원 창출에 앞장 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너지 창출을 통한 성장전략에 집중할 것입니다. 대신증권은 6월 '중앙부산·부산2·도민저축은행'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인수는 예금보험공사에서 회수 불가능한 부실 자산을 정리하고 매각하여 건전한 자산만 인수하는 자산·부채 인수(P&A)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저축은행 인수는 이종업종의 인수로 시너지를 높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Q2. 자산관리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이 치열한데 대신증권만의 차별화 전략은 무엇입니까?

개인투자자들의 자산포트폴리오에서 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은행, 증권회사 등 금융기관의 수익 중 VIP고객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금융회사별로 경쟁적으로 VIP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상품, 자산관리 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위탁영업부문에서 강점이 있는 대신증권의 경우도 전체 위탁영업 수익 중에서 차지하는 우수고객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대신증권은 강점부문인 위탁영업부문에서 타사와 획기적으로 차별화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투자자들의 리스크를 중점적으로 관리하여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 서비스가 금융주치의와 오아시스(Organized Attractive Simple Investment System)입니다.

금융주치의는 특정 종목이나 상품을 제시하는 일회성 서비스가 아니라 고객의 니즈와 시장의 변화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적절한 투자대안을 제시하고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타사와는 상당히 차별화된 서비스입니다. 대신증권은 이 서비스 시행을 위해 2008년부터 내부직원들의 역량강화에 집중하였습니다. 고객 가치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각종 제도를 정비해왔고, L&P센터를 신설해 영업직원들에게 시장 상황에 따른 다양한 투자 정보와 교육 과정을 제공하였습니다.

금융주치의가 오프라인 우수고객 중심의 서비스라면 오아시스는 온라인 금융주치의라고 보면 됩니다. 리스크 관리에서 제일 중요한 종목발굴 단계에서부터 보유주식에 대한 사후관리까지 주식투자 전 단계에 걸쳐 개인투자자들이 효율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리스크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투자자들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툴을 제공해 줍니다. 또, 실시간으로 시장 환경 변화를 분석해 투자자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투자의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이 서비스는 대신증권 홈트레이딩 시스템인 사이보스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은 올해에는 금융주치를 고객들이 보다 잘 느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고객의 라이프사이클과 시장의 트렌드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맞춤형 상품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별 특성에 따라 영업점을 차별화하고, 현재 확대되고 있는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 중심의 모바일 매체 등을 통해 금융주치의가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 Q3. 올해 실시한 사업단 중심의 조직개편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요?

이번 사업단 책임제의 실행은 부서와 팀 단위 조직관리, 채용과 이동 등의 인사관리, 평가와 성과급 등 성과관리에 관한 권한을 각 사업단장에게 부여하고 이를 활용하여 최고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단 체계는 자연스럽게 영업조직의 강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영업을 직접 지원하는 조직들은 모두 사업단 산하로 통합 편제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Financial Clinic사업단을 보면 6개 지역본부의 영업활동을 L&P센터와 고객마케팅본부가 지원하고 이를 사업단장이 총괄토록 하였습니다.

대신증권은 전통적으로 의사결정이 빠르고 실행력이 강한 조직입니다. 앞에서 말한 조직개편과 권한부여를 통해 이러한 강점을 더욱 살려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권한이 부여되는 만큼 성과 창출과 책임에 대한 강한 드라이브가 필요한 만큼 지난 해 도입한 BSC(Balanced Score Card)제도를 올해는 본격적으로 평가제도로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또, 체계적이고 균형 있는 사업단 중심의 조직운영이 되기 위해 각종 감사와 내부통제 체계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 CEO 인터뷰



신뢰와 상생과 밸런스의 철학은  
대신증권이  
세상과 소통하고  
세상과 함께 성장, 발전해 나가는  
가치가 될 것입니다.

**Q4.** 독립계 증권사로의 입지가 단단한데 대신증권만의 강점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대신증권은 한국 대표증권사로 한국증권산업과 함께 성장하여 왔습니다. 수많은 금융위기국면들 속에서도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함께 고객의 가치를 높이는 경영을 하면서 안정적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 대신증권 경영진들도 단기성과보다는 장기적인 성장과 생존능력 강화에 초점을 두고 경영을 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경제 전체적인 위기가 오더라도 대신증권은 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며 성장해왔습니다. 지난 1980년 경제위기, 1997년 외환위기,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위기를 거칠 때마다 많은 경쟁증권사들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지만, 대신증권은 위기를 디딤돌 삼아 성장 발전해왔습니다. 그래서, 대신증권은 위기관리 및 리스크관리 부문에서 강점을 가진 증권사로 평가 받고 있고, 이러한 전통과 실적을 반영해 지배구조 우수기업지수와 다우존스 지속가능지수에 편입종목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대신증권은 금융 IT분야에서 한국 최고의 증권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대신권을 창업한 故 양재봉 회장은 IT분야의 개념이 정립되기도 전인 1975년부터 전산분야에 대한 투자를 집중적으로 하면서 온라인 거래의 기반을 만들어 왔습니다. 금융IT 분야에 대한 창업자와 선대회장의 장기적인 안목과 투자로 대신증권 IT 부문, 특히 온라인 거래부문은 한국표준을 넘어 아시아 표준을 만들어 왔습니다. 실제, 대신증권은 대만의 폴라리스증권과 태국의 셋트레이드사에 한국 금융업계 최초로 온라인거래 시스템을 수출한 바 있습니다. 지난 해에는 인도네시아 최대 국영은행인 만다리 은행의 자회사인 만다리증권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이 회사에 온라인거래시스템을 개발해주고 위탁매매수수 수익을 배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본투자가 아닌 기술투자만으로 인도네시아 주식시장에 진출하여 위탁수수료 수익을 벌어들이는 비즈니스모델은 한국 금융업계 최초의 사례입니다.

대신증권의 창업정신 중 하나는 동업자 정신입니다. 대신증권 창업자는 종업원을 종업원이 아닌 동업자로 생각하고, 종업원 스스로 주인으로서 회사를 이끌도록 경영을 해왔습니다. 또, 인재제일주의의 원칙을 정립하며 인재양성에 매진하여 왔습니다. 한국 금융투자업계 최초로 ESOP 제도를 실시하면서 매년 종업원들에 경영성과의 일부를 주식을 나눠주어 전 종업원이 주주인 회사입니다. 금융투자업계 속성상 이직이 많아 평균근속연수가 짧은 편이지만 대신증권은 평균근속연수가 10년 이상인 직원이 50%가 넘는 정도로 전문가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고, 우수한 인재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Q5.** 대신증권의 기업문화에 대해 말씀해주시지요

창사이래 대신권을 움직여 왔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믿음입니다. 대신이란 사명이 큰 믿음이란 뜻으로 대신은 믿음이란 가치를 기반으로 고객, 직원, 사회와 소통하며 성장해왔습니다. 지난 해 대신증권 '신뢰와 상생'의 가치를 담은 CI(Corporate Identity)를 바꿔 새롭게 출발하였습니다. 새 CI는 대신증권의 경영철학인 '믿음경영'을 보다 발전시켜 '신뢰와 상생'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표현하였고, 고객과 회사간의 진실한 신뢰관계를 통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겠다는 상생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신뢰와 상생'의 기업철학은 현재 대신증권이 추진하고 있는 서비스와 상품 그리고 사람에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고객과 직원, 기업과 사회가 '더불어 함께' 성장해야 한다는 대신증권의 큰 원칙을 바탕으로 '대신증권다운 서비스'와 '대신증권다운 사람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시작한 Meet the Mr. Balance 캠페인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이 캠페인은 각 분야의 명사들을 초청해서 균형 잡힌 삶을 실천하는 그들 인생의 밸런스 스토리를 고객들에게 전파하고, 이를 통해 대신증권 고객들이 투자와 삶의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대신증권 임직원들이 금융의 역할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고, 금융주치의로서 각오를 다지게 합니다. 이러한 생각과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신뢰와 상생과 밸런스의 철학은 대신증권이 세상과 소통하고 세상과 함께 성장·발전해 나가는 가치가 될 것이고, 이러한 가치를 통해 대신증권은 새로운 기업문화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Q6.** 대신증권의 해외시장 전략 및 계획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지요.

현재 대신증권은 홍콩 현지법인, 중국 상해사무소, 일본 동경사무소 등 해외거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대만, 베트남, 라오스 등 직접 진출하지 않는 국가에서는 제휴를 통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해외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진출이 필요한 국가에는 현지 법인 또는 사무소를 운영함으로써 보다 직접적이고 긴밀하게 해외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진출이 유력시되는 국가에는 사전단계의 일환으로 제휴를 통해 해외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외주식 서비스, 각종 투자상품의 개발, 온라인 증권거래 시스템을 통한 협력 등 증권업의 다양한 분야에서 해외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은 상당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등을 중심으로 발생한 유로존의 금융위기는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으며, 세계경제 GDP의 25%를 차지하는 미국 경제의 더블딕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시장을 압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은 성장에 대한 경계심이 고개를 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머징 시장을 비롯한 세계 글로벌 시장이 장기적으로 계속 성장해 나간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대신증권은 앞으로 더 많은 집중과 기회 포착을 통해 좋은 해외사업을 만들어내고 적극적인 해외진출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장하고 있는 아시아 지역 외에도 구미 및 기타 이머징 국가에서의 사업기회 역시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특정 국가나 해외시장을 먼저 선택하지 않더라도, 글로벌 시장에서 개별적으로 발생하는 사업기회나 투자기회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나갈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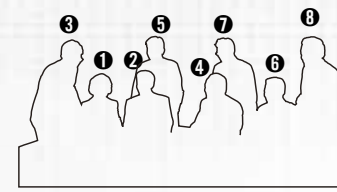
최근 대신증권은 인도네시아 만다리증권에 온라인 증권거래 시스템을 제공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을 배분하는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협력사업 모델은 일찍이 국내 금융기관이 시도하지 않았던 것으로서, 인도네시아 증권시장의 중장기적인 성장이 지속된다면 상당히 효과적인 사업성과를 거둘 수 있는 비즈니스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다리증권과는 온라인 증권거래뿐만 아니라, IB, 금융상품, 조인트벤처 등 증권업의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홍콩현지법인은 중국은 물론 아시아 시장을 효과적으로 공략하기 위한 중심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기 위해 기능 및 역할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브로커리지 업무에 집중하고 있는 홍콩 현지법인에 IB와 관련한 투자은행 기능을 더욱 강화함은 물론, 글로벌 금융시장을 전체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조사, 분석 기능 역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현재는 중국과 홍콩에서의 해외사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인도네시아에서의 온라인 증권거래 협력사업을 비롯해 아시아 시장을 중점적으로 공략하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구축한 Pan Asia Business Belt를 활용해 중장기적으로 아시아의 대표적인 Regional IB, Regional Broker로서 성장해 나가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경영진 및 사외이사

대신증권은 투명경영을 실천함으로써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독립된 사외이사의 감독하에 믿음에 근간한 책임경영을 구축함으로써 국내 최고 수준의 이사회, 글로벌 수준의 지배구조를 확립할 것입니다.



## 경영진

- 1 **이어룡**  
회장
- 2 **노정남**  
사장 & CEO
- 3 **양홍석**  
부사장 & CEO

## 사외이사

- 4 **김성호**  
사외이사
  - 서울지방국세청장, 조달청장 역임
  - 보건복지부 장관 역임
  - 선진경영연구소 대표
- 5 **이정훈**  
사외이사
  -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변호사
  - 대한중재인협회 회장 역임
  - 변호사
- 6 **박찬욱**  
사외이사
  - 서울지방국세청장 역임
  - 재단법인 정평장학회 이사장
  - P&B 세무컨설팅
- 7 **황인태**  
사외이사
  - 금융감독원 전문심의위원 역임
  -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역임
  - 중앙대 경영대 교수 및 기획관리 본부장
- 8 **이인형**  
사외이사
  - 수원대학교 경영학부 부교수 역임
  -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역임
  - 한국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 Trust & Growth

고객과 함께

고객의 믿음으로 대신이 자라납니다. 1962년 창립 이후 고객의 믿음을 자양분으로 커 온 대신증권에게 고객은 존재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모두가 자신 있게 나아갈 수 있는 좋은 시기뿐 아니라 한 발 뒤로 물러서고자 하는 어려운 시기에도 대신증권은 고객과 동행하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국내외 금융시장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변화와 기회, 그리고 위기가 공존하는 이 때에 대신증권은 고객과 잡은 손을 더욱 굳게 잡고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OPERATION REVIEW	16
고객중심경영	
	20
사업성과	
	24
리스크관리	



총자산 증가율  
(단위: %)



# 고객중심경영

“ 진정한 고객만족은 고객의 입장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머리로만 생각하고 입으로만 말하는 그런 고객중심경영이 아니라 고객과의 모든 접점에서 행동으로 보여지는 고객만족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



대신증권은 지난 50년 동안 믿음으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온 증권회사입니다. 대신증권에 있어 가장 큰 버팀목은 고객이며 모든 혁신은 고객으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패러다임은 주주본주의에서 고객본주의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고객, 행복한 고객을 확보하는 것이 기업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기업이 고객가치를 최우선으로 할 때 주주와 회사, 직원의 가치도 따라서 상승하게 됩니다.

대신증권은 고객맞춤형 리스크관리 및 자산관리서비스인 ‘금융주치의’를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고객가치를 올릴 수 있는 서비스에 집중할 것입니다. 상품, 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고객이 모든 자산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신뢰관계를 쌓아나가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 개인투자자의 리스크관리서비스 - ‘금융주치의’와 ‘오아시스’

한국 증권시장은 선진국에 비해 변동성과 쏠림 현상이 커 개인투자자들의 리스크관리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상승국면에서 뇌동매매를 하거나 분위기에 휩쓸려 위험관리를 소홀히 해 개인투자자의 투자수명이 단축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신증권은 개인투자자들이 장기적으로 증권시장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리스크관리에 힘써오고 있습니다.

### 금융주치의

금융주치의를 통해 대신증권은 투자의 사전 단계부터, 투자단계, 투자 이후 단계까지 투자의 전 과정에 대한 리스크관리를 통해 개인투자자들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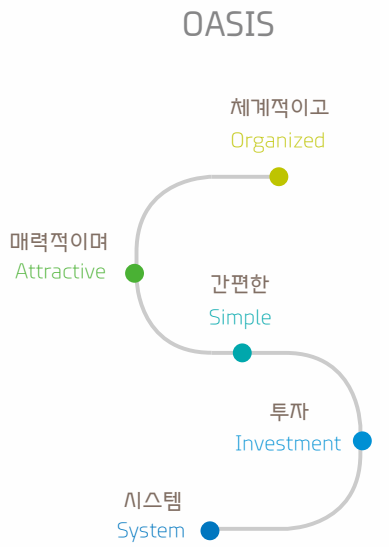
금융주치의는 특정 종목이나 상품을 제시하는 일회성 서비스가 아니라 고객의 니즈와 시장의 변화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적절한 투자대안을 제시하고, 체계적인 리스크관리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어, 환율, 원자재 가격 등 주가 흐름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들을 정리한 Key Factor 서비스, 주가의 향후 전망을 다양한 가능성에 따라 분석하고 이에 따른 투자대안을 제시한 시나리오 콘텐츠, 시장에 중요사항이 발생했을 때 자동으로 알려주는 Must Contact 등이 금융주치의를 통해 체계적으로 전달됩니다.

2009년이 금융주치의의 실행을 위해 각종 제도를 정비하고 L&P센터를 신설하여 내부 직원들의 역량 강화에 집중한 시기라면, 2010년은 고객들이 금융주치의의 차별성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출시한 해라 할 수 있습니다.

대신증권은 2009년 10월 금융주치의 서비스의 하나인 ‘빌리브 서비스’를 오픈하여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시장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최적의 구조로 설계된 ELS/DLS와 같은 파생금융상품, 50~60대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대신 꼬박꼬박 월지급형 서비스’ 등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들이 금융주치를 보다 잘 체험할 수 있도록 삼성동, 제주, 반포지점 등을 새로운 레이아웃과 디자인을 적용한 ‘금융주치의 점포’로 특화하여 오픈하였습니다.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스마트폰 트레이딩 프로그램인 사이보스 터치를 개발하여 온라인 및 모바일 채널을 이용하는 고객 서비스를 크게 개선하였습니다.





**오아시스(OASIS)**

대신증권은 금융투자업계 최초로 온라인 고객들의 리스크관리와 자산관리를 위한 온라인상의 금융주치의인 '오아시스(Organized Attractive Simple Investment System)'를 선보였습니다. 이 서비스는 개인투자자들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고, 수익과 리스크의 'Balance'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아시스의 가장 큰 특징은 '종목선정, 보유종목 모니터링, 매매타이밍 선정, 매매내역 진단'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고객 스스로가 체계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점입니다. 특히 주식매매의 사전단계에서 사후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반드시 필요한 기능을 사용하기 쉽게 구성하여 HTS 사용에 어려움을 겪었던 고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오아시스는 종목선정이 리스크관리의 시작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금융공학 모형, 애널리스트 및 금융주치의 추천종목 등 다양한 관점에서 엄선된 관심종목을 제공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지정한 조건에 맞춘 종목검색도 가능합니다. 기업실적, 외국인 및 기관 매수상위, 차트패턴, 워렌버핏 같은 투자대가들의 종목 선정기준 등 다양한 검색을 통해 신속하게 종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최근 많이 매수하고 있는 업종이나 종목들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업종수급 삼국지', 과거 3년간 수익률 데이터를 분석하여 상위업종을 제공하는 업종달력 기능과 업종별 주도주와 관련 종목과의 관계를 도식화하여 보여주는 그래픽 종목 기능을 통해 월별 관심업종과 종목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매내역 진단기능에서는 자신의 손익 및 매매수익률뿐만 아니라 이익과 손실이 많았던 종목 및 주로 매매했던 종목의 내역, 과거에 매매했던 종목의 매매성공률까지 제공합니다. 당시의 시장 주도주와 주도업종에 대한 정보도 제공되기 때문에 투자자가 스스로 시장 흐름에 효과적으로 대응했는지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투자했던 종목의 매수·매도 시점과 뉴스·공시 및 다양한 기술적 지표들을 조합하여 차트를 통해 분석할 수 있는 '매매복기 차트'를 제공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매매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오아시스는 보유종목에 대한 펀더멘털, 수급 등 각종 투자정보를 제공하며, 보유종목이 목표가나 손절가에 도달하면 문자서비스를 통해 자동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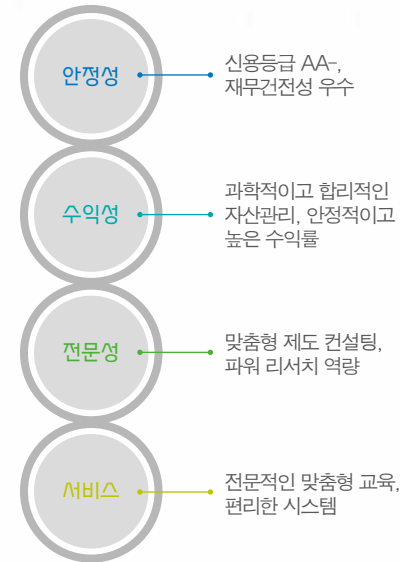
대신증권은 올해에는 금융주치를 고객들이 보다 잘 느낄 수 있도록 오아시스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고객의 라이프사이클과 시장의 트렌드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맞춤형 상품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별 특성에 따라 영업점을 차별화하고, 현재 확대되고 있는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 중심의 모바일 매체 등을 통해 금융주치의가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한 큰 믿음 - 퇴직연금**

2005년 12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시행된 이후 퇴직연금시장은 매년 큰 폭으로 성장하여 2010년 12월말 기준 퇴직연금시장 적립금 규모가 약 29조원을 상회하였습니다. 2011년에도 퇴직연금시장은 큰 폭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금년 말에 퇴직연금시장 적립금 규모는 약 5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신증권은 2010년에 한국거래소, 근로복지공단 등 공기업을 비롯하여 SK C&C, 하이트맥주, 한진해운, 보령제약, 한미반도체, 법무법인 율촌, 서울신용평가정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내 우수기업들의 퇴직연금을 성공적으로 유치하였고, 퇴직연금을 이미 유치한 기업들과의 우호적인 관계유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적립금을 추가 납입 받음으로써 성장세를 이어 왔습니다. 2011년 역시 대신증권의 강점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시장공략을 통해 적립금 규모를 확대하고 시장점유율을 증대하는 등 퇴직연금사업자로서의 경쟁력과 브랜드 가치를 제고해 나갈 것입니다.

행복한 미래를 위한 큰 믿음  
대신증권 퇴직연금  
신뢰와 상생의 철학으로 고객과 함께합니다.



**퇴직연금 가입현황**

구 분	DB Defined Benefit	DC Defined Contribution	IRA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합 계
계약체결 (건)	64	147	125	336
적립금 규모 (억원)	596	665	65	1,326
가입자 수 (명)	13,425	4,111	125	17,661

(2011년 3월 31일 기준)

2011년에는 퇴직보험과 퇴직일시금신탁으로의 불입이 더 이상 불가능해지고, 국제회계기준(K-IFR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도입이 본격화될 것입니다. 아울러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강화와 근로자의 퇴직연금제도 유형선택의 폭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전면 개정안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장의 내·외적 요인들이 퇴직연금시장의 큰 폭 성장에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퇴직연금사업자간 사활을 건 치열한 시장 쟁탈전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전망 하에 대신증권은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 및 시장점유율을 현재의 2배 이상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퇴직연금부부와 IB부문을 축으로 하는 기업금융사업단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조직 내 연계영업 및 협업체계를 강화하여 시너지 창출을 확대해 나감은 물론 영업점과의 연계를 통해 IRA 유치영업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기업과 근로자의 투자 패러다임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고객 맞춤형 상품을 제공하는 동시에 고객 니즈에 부합하는 퇴직연금-IB 토탈 금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수익률 제고와 고객기반 확충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고객 중심의 업무프로세스 개선 및 부가서비스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확보하고, 시의적절한 투자정보 제공 및 효율적인 자산배분지원을 통해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과 고객가치 증대에 동행하는 퇴직연금 주치의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금융주치의 철학이 반영된 고객만족**

대신증권은 금융주치의 철학을 반영하고, 금융주치의 핵심내용의 성공적인 수행 및 정착을 위해 고객만족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객과의 관계관리를 강화하고 고객니즈를 점검, 개선하기 위하여 매월 900여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된 고객만족도 결과를 전사적 차원에서 반기별로 공유하여 자발적인 서비스 개선 및 고객관계관리 강화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점별 CS(Customer Satisfaction)활동의 일환으로 고객이 만족하고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고객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회계연도에는 직원들의 업무지식 및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고객에 대한 서비스 품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대신증권은 고객의 소리(VOC: Voice of Customer) 또한 적극적으로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 116개 전 지점에 VOC 담당자를 선정하여 모든 VOC에 대해 책임 있고 즉각적인 피드백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기업의 경영활동에 활용하고 궁극적으로 고객의 소리에 근거한 고객만족 경영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사기 진작 및 청천과 격려, 따뜻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CS우수 지점, 팀, 직원을 발굴하여 포상하는 등 정기적인 CS평가제도 운영을 통해 고객만족도를 높이고, 접점에서의 고객 불만을 감소시킴으로써 고객만족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사업성과

“ 최고와 최초의 대명사인 대신증권의 일원임이 자랑스럽고 기쁩니다. 성장과 안정의 밸런스, 자율과 능률의 하모니를 통해 2011년에도 최고의 성과, 더 많은 최초의 기록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대신증권은 수익기반의 다변화를 추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기존의 강점인 브로커리지 부문뿐만 아니라 자산관리, 고유자산운용, IB 부문의 수익 비중을 점차 끌어올려 미래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회사 수익구조를 선진화한다는 전략을 구축하였습니다.

## 사업부문별 주요 성과

자산관리 부문은 금융상품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 중입니다. 이를 위한 기본 방향으로 금융상품 부문도 주식과 마찬가지로 리스크관리 서비스 강화를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 시나리오에 맞는 좋은 상품에 투자하고 보유기간 동안 리스크를 꾸준히 점검하면서 원하는 수익을 실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리스크관리에 실패한 펀드의 환매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금융상품에 있어서 리스크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해 주식부문의 리스크관리 서비스인 '오아시스'를 오픈했다면 올해에는 금융상품 부문과 관련한 리스크관리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개별 금융상품에 있어서도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상품 라인업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를 대비한 '꼬박꼬박 월지급형 서비스'와 같이 젊은 세대의 목돈 마련을 위한 '차곡차곡 적립식 서비스'도 개발 중입니다. 이 밖에 펀드, 채권, ELS, 개인퇴직계좌 가입 시 금융자산포인트를 부여해 합산포인트에 따라 CMA 최고 9%, 대출 최저 1%까지 파격적인 금리혜택을 제공하는 '빌리브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해나갈 것입니다.

고유자산운용 부문은 올해 전략적으로 강화시킬 부문입니다. 최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고, 파생상품 시장 등 다양한 상품시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자기자본 투자 등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대신증권은 이러한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헤지펀드 등 전략적 자산운용부문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원으로 육성할 것입니다.

IB부문 역량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회사채, IPO(기업공개), 주식연계채권 등 전통적인 IB비즈니스 부문의 역량기반을 바탕으로, PEF, 기업구조조정과 M&A, SPAC, 구조화 금융업무 등 고부가가치 업무영역까지 확대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폴리실리콘 제조업체인 한국실리콘 IPO 대표 주관사로 대신증권이 최종 선정되는 등 IB부문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신증권의 강점부문인 리테일 조직을 활용한 IB연계영업을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강점을 갖고 있는 리테일 영업조직을 IB비즈니스에 활용해 우량 IB딜을 선점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 최저 온라인 증권거래 서비스, 크레온(CREON)

2011년 3월에 출시한 크레온 서비스는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는 국내 최저 온라인 증권거래 서비스입니다. 수수료 측면에서는 국내 최저수준으로 출시함으로써 투자자의 실질적인 혜택을 강화하였습니다. 시스템적인 측면에서도 고객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크레온 서비스는 대신증권 HTS의 검증된 속도와 안정성을 기반으로 개발되었으며, 매매에 필요한 핵심기능의 경우 사용자 시선의 움직임도 고려해 쉽고 간결하게 화면을 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고객지향적인 HTS로 발전시키기 위해 고객의 시스템 관련 제안 내용에 대해서는 당일 검토하고 당일 피드백하는 '인타임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번 크레온 출시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온라인 저가시장에서 고객 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서비스가 출시되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확보된 고객 기반을 활용해 다양한 영역으로 사업확대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실제로 출시 이후 현재까지 은행연계 증권거래 시장점유율과 평균 계좌 개설수가 크게 늘어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나이가 참신한 아이디어를 반영해 차별화된 컨셉의 마케팅을 통해 젊은 고객에게 어필할 수 있는 혁신적이고 세련된 브랜드 이미지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젊은 고객층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해외시장 진출 - 인도네시아 온라인 위탁매매시장 진출**

대신증권은 최근 인도네시아 만디리증권과 온라인 사업제휴를 위한 협력사업 계약 조인식을 가졌습니다. 대신증권이 만디리증권의 온라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주고, 만디리증권에서 발생하는 온라인 거래수수료를 양사가 배분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은 대신증권이 보유하고 있는 선진화된 금융IT기술과 온라인 사업 노하우를 접목하여 해외시장을 개척한 사례로 한국금융투자업계에서는 처음 있는 기술투자 후 수익을 배분하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이번 제휴는 앞으로도 국내 증권사의 해외시장 개척이 실질적인 수익의 증가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디리증권과의 제휴는 대신증권이 아시아의 대표적인 Regional Player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동시에 대신증권이 보유한 기업역량을 해외시장에 접목시킨 사례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현재 대신증권은 홍콩 현지법인, 상해사무소, 동경사무소 등 해외거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대만,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등 직접 진출하지 않은 국가에서는 제휴를 통한 협력체계를 통해 Pan Asia Business Belt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진출이 필요한 국가에는 현지 법인 또는 사무소를 운영함으로써 보다 직접적이고 긴밀하게 해외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진출이 유력시되는 국가에는 사전단계의 일환으로 제휴를 통해 해외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주식 서비스, 각종 투자상품의 개발, 온라인 증권거래 시스템을 통한 협력 등 증권업의 다양한 분야에서 해외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IB명가로 부활 시동**

대신증권이 IB명가의 부활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은 비상장기업인 썬텔을 대상으로 스팩 합병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썬텔은 터치스크린 패널 및 신소재 제조업체로 2010년 회계연도 기준 매출액은 494억원, 순이익은 37억원을 기록한 우량한 비상장법인입니다.

이번 합병은 아직 주주총회에서의 합병승인 절차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 동안 자본환원을 산정 및 비상장법인에 대한 상대가치 평가기준의 변동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스팩업계에 좋은 선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스팩이라는 제도가 아직은 과도기에 있으나, 자본시장에서 스팩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만큼 대신증권은 회사의 IB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이번 합병상장을 통해 국내 스팩시장이 활성화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U-CYBOS Global을 잇는 모바일서비스 - CYBOS Touch**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가 2009년 말 80만 명에서 2011년 3월에는 천만 명을 돌파하였습니다. 스마트폰 판매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고, 사용자층도 점차 확대되어 본격적으로 모바일 시대가 개막되고 있습니다. 모바일 서비스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점점 커지면서, 각 증권사들의 모바일 증권거래서비스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모바일을 통한 주식 약정은 전체 온라인 주식 약정 중 8%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신증권 역시 투자자 수요에 대응해 모바일 증권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신증권은 아이폰, 안드로이드폰, 아이패드, 갤럭시 탭에 대신증권 증권 전용 앱(App.)인 'CYBOS Touch'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식뿐만 아니라 선물옵션, ELW거래 등 다양한 주문 기능을 제공하는 CYBOS Touch의 장점은 banking 서비스와 잔고 조회 외에도 핫이슈 종목, 테마입체분석, 국내외 주요지수 및 프로그램 매매동향, 종목 리포트, 증권뉴스 등 다양한 증권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CYBOS Touch에 관심종목을 설정해 놓으면, 빠른 관심 기능을 통해 로그인 없이 관심종목을 바로 조회할 수 있고, 대신증권 계좌가 없더라도 '둘러보기'기능을 이용하면 주문을 포함한 모든 기능을 가상으로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또한 3D 기능을 제공해 세계 증시현황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관심종목 등록 기능은 당사 HTS프로그램인 U-CYBOS Global과 연동되어 편집이 쉽고, 종목 검색의 경우에는 음성 종목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편리합니다.

태블릿PC의 경우 손쉬운 사용기능을 최대한 살려 이용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킷 메뉴를 통해 빠른 화면 전환이 가능하고, 가로 및 세로보기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용 초성입력기를 통해 종목을 손쉽게 선택할 수 있고 기존의 리스트 형식이 아닌 전광판 화면 기능을 추가로 제공해 시각적으로 편리한 검색이 가능합니다.

이동성과 즉시성을 지닌 기존의 모바일 서비스에 소셜 서비스를 접목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모바일 혁명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신증권은 기존의 검색 및 매매 중심의 서비스에서 더욱 발전된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개개인에 맞는 금융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 리스크관리

“ 대신증권은 리스크관리 부문에서도 단연 으뜸입니다. 호황이나 상승세는 물론, 어려운 장세에서도 안정성을 유지하는 리스크관리 능력은 대신의 자랑이자 최고의 강점입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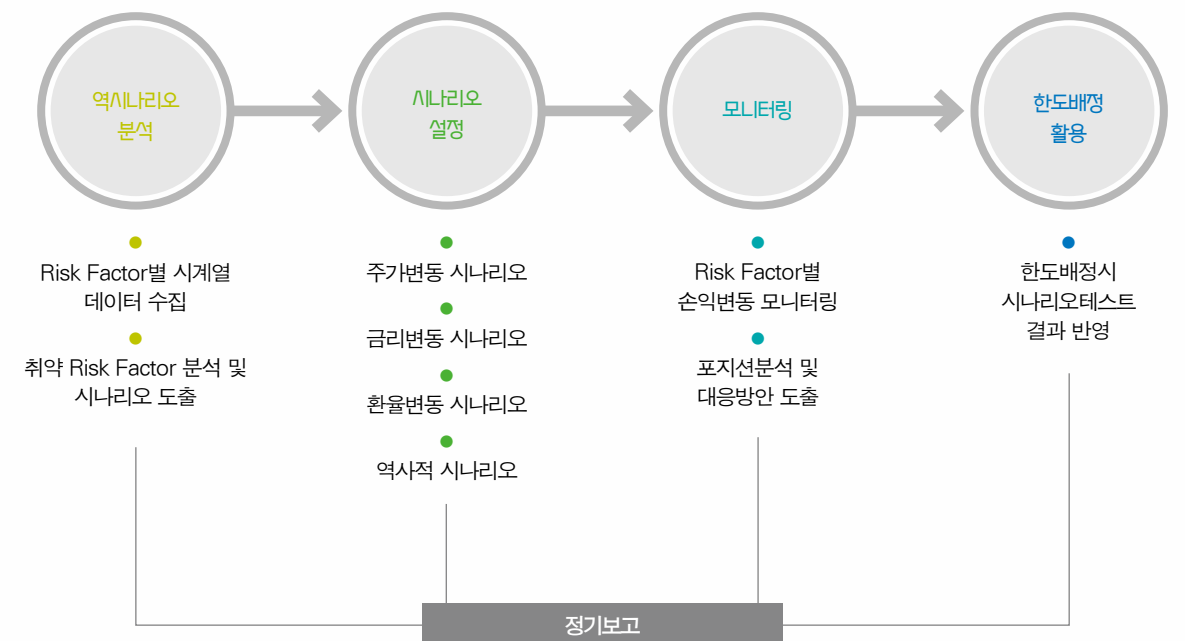
대신증권은 전통적으로 단기성과보다는 장기적인 성장과 생존능력 강화에 초점을 두고 경영을 해왔습니다.故 양재봉 대신증권 창업자뿐만 아니라 그 동안 대신증권을 경영했던 최고경영진들은 다른 어떤 부문보다도 리스크관리를 최우선 경영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대신증권은 위기때 더욱 빛이 나는 증권사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지난 1980년 경제위기, 1997년 외환위기,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위기를 거칠 때마다 대신증권은 보다 더 성장하고 발전해 왔습니다. 이러한 전통과 실적을 반영하여 대신증권은 지배구조우수기업지수와 다우존스 지속가능지수에 편입되었습니다.

## 리스크관리 주요 성과

2010년에는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하고 선진화된 리스크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첫째, 유동성리스크 관리 강화입니다. 유동성리스크는 유동성 부족 또는 높은 거래비용 등으로 운용자산을 정상적으로 청산하지 못해 회사가 입게 되는 손실위험을 말합니다. 대신증권은 리스크관리부서, 운용부서, 자금부서와의 긴밀한 협조하여 유동성갭 한도를 설정·관리하고 있으며 비상상황대처 3단계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위기상황시 유동성 확보 및 자금조달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수시입출금 상품의 급격한 인출로 장·단기 자금조달능력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기상황에 대한 분석기능을 강화하였고, 날로 확대되는 외환 및 파생상품 관련 유동성리스크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유동성리스크 관련 시스템 및 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둘째, 스트레스 테스트 강화입니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예외적이지만 발생 가능한 사건에 대한 금융기관의 잠재적인 취약성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는 리스크관리 기법을 말합니다. 금융위기를 계기로 국내외에서 제기된 스트레스 테스트 관련 문제점들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매일 리스크 팩터별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는 등 손익 변화를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효성 있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여 결과를 리스크 한도 배분에 활용하고 있으며, 역시나리오 분석 및 시장신용유동성 연계가 가능하도록 전산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스트레스 테스트 시나리오 점검 및 활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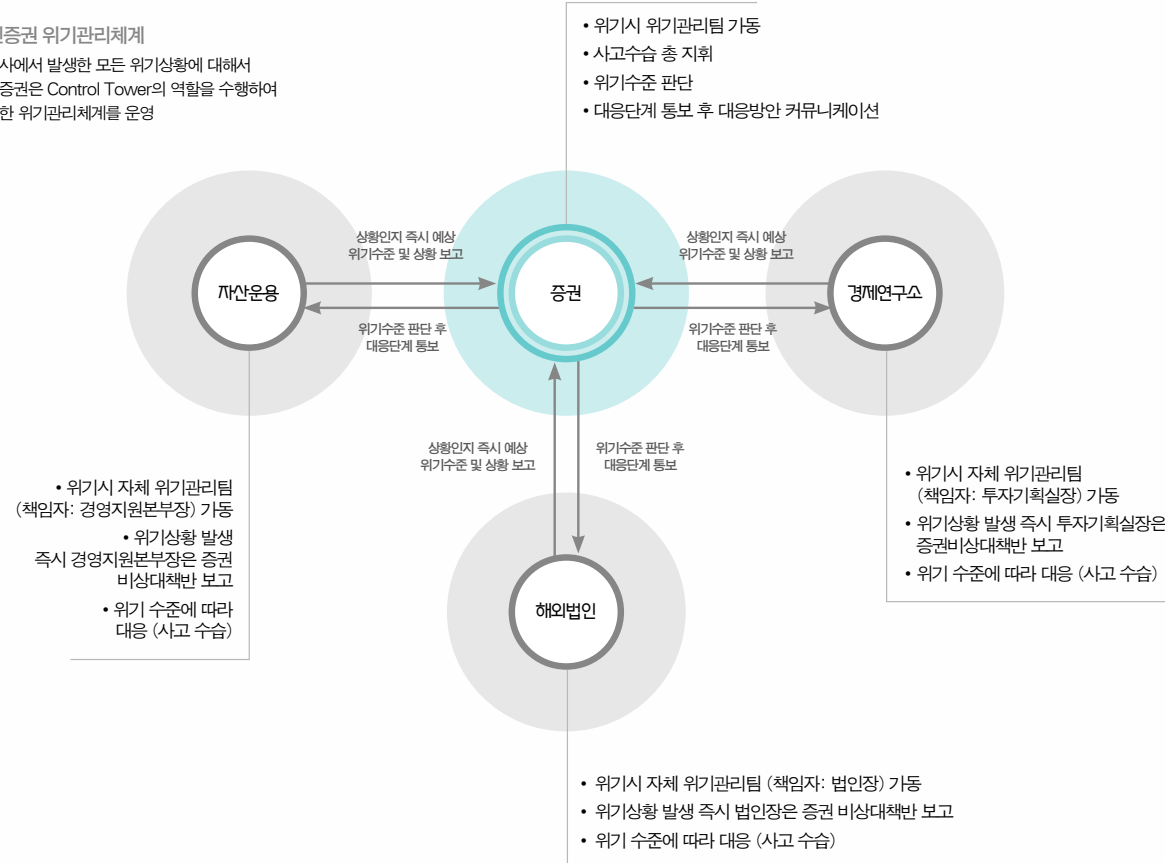


셋째, 리스크관리 의사결정 체계의 개선입니다. 신속한 의사결정 및 리스크관리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리스크관리집행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리스크관리집행위원회는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임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리스크집행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부서별·운용전략별 리스크한도 승인, 회사 리스크관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신규상품거래 승인, 일정규모 또는 일정신용등급에 해당하는 인수업무 승인 등입니다. 집행위원회 위원장은 리스크관리본부장이며, 회사 리스크관리와 관련하여 거래담당부서에 거래의 중단, 포지션 조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올해 대신증권의 리스크관리 방향은 평가프로세스의 개선과 리스크를 감안한 성과평가(RAPM: Risk Adjusted Performance Measurement) 시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장외파생상품 거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밸류에이션 팀 구성을 통해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공정한 평가 및 검증체제를 확립하고, IFRS 재무제표 변경에 따른 심사능력의 배양과 심사영역 확대에 따른 프로세스를 재정비할 예정입니다. 또한 장외파생상품의 체계적인 관리 및 공정한 평가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장외거래에 따른 운용위험을 최소화하고 가격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시스템적, 재무적 위험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과평가에 있어 리스크에 대한 비용을 손익에 포함하여 평가와 연계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리스크를 감안한 성과평가(RAPM)를 시행함으로써 대신증권은 보다 효율적인 성과보상체제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신증권 위기관리체계  
관계사에서 발생한 모든 위기상황에 대해서  
대신증권은 Control Tower의 역할을 수행하여  
민첩한 위기관리체계를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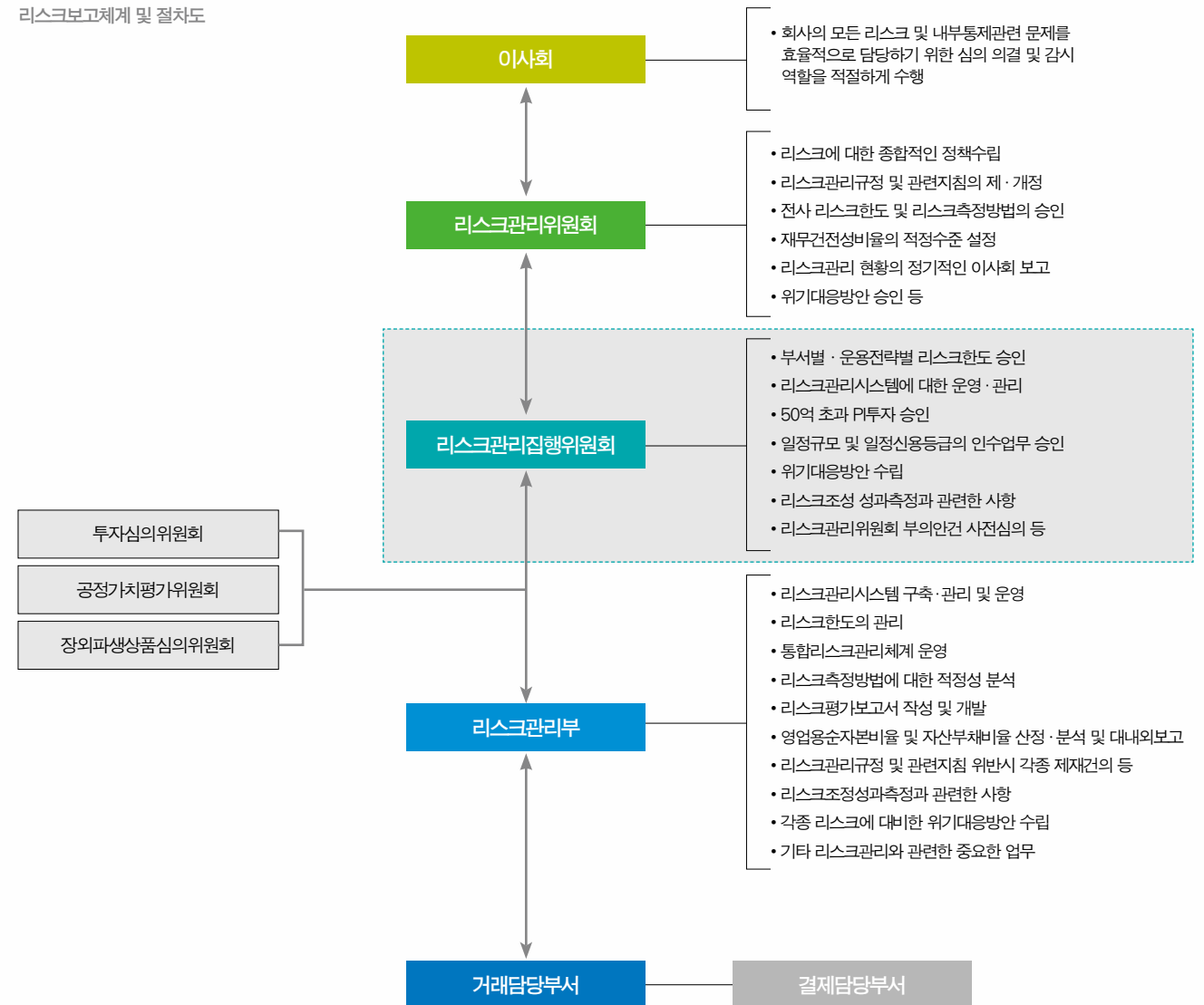


### 항시적 위기관리(Crisis Management) 체계 운영

대신증권은 선제적이고 항시적인 위기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위기상황 발생시 위기관리팀을 중심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위기 발생 원인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해킹이나 전산사고와 같은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사고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전사적인 커뮤니케이션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특히, 사건 초기에 신속한 대응을 해야 사건이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대신증권은 고객자산 보호와 고객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위기상황 발생시 위기대응체계 운영 매뉴얼에 따라 기민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한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위기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적 위기관리에 힘쓰고 있으며, 위기 상황 발생시 유형에 따라 Code Yellow, Code Orange, Code Red 등으로 구분하여, 차별화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리스크보고체계 및 절차도



SUSTAINABILITY REVIEW	30
기업지배구조	31
주주가치	32
사회공헌	

# Harmony & Responsibility

더불어 함께

대신증권은 나눔의 힘을 믿습니다. 대신증권은 사회 구석구석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서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교육과 학술, 소외계층 지원, 지역사회 지원, 그리고 환경보전 등 다양한 부문에서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신증권에게 나눔은 이제 기업문화로 자리잡았습니다. 더불어 성장하고 함께 기뻐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어려운 이들이 보다 나은 미래를 희망할 수 있도록 대신증권은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하겠습니다.



# 기업지배구조

건전한 기업지배구조에 기반한 투명하고 성실한 경영을 바탕으로 사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모든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확보해나가고 있습니다.

## 2010년 대신증권 지배구조 평가결과 요약

- **평점**  
198점 (300점 만점)
- **순위**  
15위 (주권상장법인 690사)
- **등급**  
양호+ (Very Good) (8등급 중 4등급)

대신증권은 독립된 사외이사의 감독하에 이사회를 중심으로 한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여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Korea Corporate Governance Service)에서 발표한 2010 지배구조 평가결과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690개사의 주권상장법인 중 15위를 차지하였고, '양호+ (Very Good)'의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대신증권은 주주권리보호, 이사회, 공시, 감사기구, 경영과실배분 등 모든 항목에서 유가증권시장뿐만 아니라, 증권업계 평균을 뛰어넘는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대신증권은 또한 2009년 10월 '다우존스 한국지속가능경영지수(DJSI Korea)'에 편입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는 전 세계 기업을 대상으로 경제, 사회, 환경 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사회공헌 활동을 비롯한 사회책임경영에 적극적인 기업을 발표하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지표입니다. 국내 주요 200개 기업을 평가대상으로 하는 다우존스 한국지속가능경영지수는 24개 산업군에서 총 41개 종목이 지수구성종목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증권사의 경우 16개 상장증권사 중 대신증권 외 2개사가 선정되었습니다.

2010년 대신증권 기업지배구조 평가

	대신증권	유가증권시장	증권업	자산총액유사기업 (2조이상)
주주권리보호 (90)	63.0	48.9	50.0	49.7
이사회 (90)	49.0	24.6	34.0	39.8
공시 (60)	38.0	19.4	24.5	31.3
감사기구 (50)	40.0	22.1	32.0	37.3
경영과실배분 (10)	8.0	2.5	4.0	2.8
<b>총점 (300)</b>	<b>198.0</b>	<b>116.6</b>	<b>144.6</b>	<b>160.9</b>

출처: 한국기업지배구조원

# 주주 가치

균형 잡힌 성장을 통해 기업의 가치를 제고하고, 이를 기반으로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지난 몇 년간 대신증권은 수익구조 다변화와 비즈니스 모델 선진화를 위해 꾸준히 투자해 왔습니다. 지난 회계연도 증시주변환경이 악화되면서 실적이 감소하였지만, 이익의 질은 크게 개선되었고, 중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은 높아졌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은 안정적인 수익기반을 유지하면서 한국 대형증권사로서는 유일하게 13년 연속 현금배당을 실시하였습니다. 2010회계연도 1주당 배당금은 보통주 750원, 제1종 우선주 800원, 제2종 우선주 750원입니다. 시가 배당률은 보통주 4.8%, 제1종 우선주 7.7%, 제2종 우선주 8.0%로 업계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고, 배당금 총액은 598억원으로 배당성향은 70.8%입니다.

대신증권은 또한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현금배당뿐만 아니라 자기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주가 안정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신증권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는 보통주 4,588,808주 (9.0%), 제1종 우선주 3,400,000주 (13.1%), 제2종 우선주 600,000주 (6.0%)입니다.

대신증권은 전통적으로 주주 가치를 중시하는 경영을 해왔고, 주주 이익 증대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성장을 통해 주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대신증권 13년 연속 현금배당 현황

		FY98	FY99	FY00	FY01	FY02	FY03	FY04	FY05	FY06	FY07	FY08	FY09	FY10
주당배당금 (원)	보통주	500	1,500	750	500	500	650	500	1,000	1,000	1,250	1,000	1,000	750
	1우선주	550	1,550	800	550	550	700	550	1,050	1,050	1,300	1,050	1,050	800
	2우선주	-	-	-	-	-	-	-	-	-	1,250	1,000	1,000	750
시가배당률	보통주	3.7%	8.8%	7.3%	1.9%	3.3%	3.8%	3.3%	4.9%	4.4%	5.2%	5.4%	5.9%	4.8%
	1우선주	5.9%	12.2%	13.4%	4.4%	7.4%	7.4%	5.1%	6.8%	7.2%	9.5%	12.9%	9.8%	7.7%
	2우선주	-	-	-	-	-	-	-	-	-	10.3%	13.6%	10.6%	8.0%
당기순이익 (억원)		636	3,371	873	134	420	738	412	1,574	1,000	1,778	1,033	914	844
배당금총액 (억원)		295	1,135	574	387	382	491	371	750	774	1,062	801	790	598
배당성향		46.4%	33.7%	65.7%	288.1%	90.9%	66.5%	90.0%	47.6%	77.5%	59.7%	77.6%	86.5%	70.8%



# 사회공헌

함께 나누며 성장하는 '화합의 밸런스'  
대신증권은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내일」을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합니다.

대신증권의 사회책임활동은 故 양재봉 대신증권 창업자가 1990년 7월 설립한 대신 송촌문화재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부, 출연, 협찬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회 각 계층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로 설립 21년째를 맞이하는 대신송촌문화재단(이사장 양홍석)은 '기업이윤의 사회환원'이라는 기업이념 아래 증권업계 최초의 순수문화재단으로 탄생되었습니다. 설립 초기 양재봉 이사장의 사재 1억원으로 설립된 재단은 현재 기본재산 규모가 160억원에 이르는 대형 재단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대신송촌문화재단 설립 초기 활동은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장학사업과 연구여건이 열악한 학술단체에 대한 연구활동비 지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대신송촌문화재단은 장학사업과 연구활동비 지원뿐 아니라 소년소녀 가장지원, 사회복지시설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96년부터 2001년까지 가난한 가정환경으로 수술을 받지 못하고 있는 언청이(구순구개열) 환자 360명에 대하여 수술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에 대한 후원의 손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 주요 사회공헌 활동

2011. 02. 07

### 종이 줄이기 친환경 이벤트

대신증권은 종이 줄이기 친환경 이벤트를 통해 적립된 709만원을 환경단체에 전달하였습니다. 이 이벤트는 불필요한 종이사용과 우편발송에 드는 비용을 줄여 환경보호를 실천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행사로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2011. 01. 17

### 신입사원 '사랑의 행군' 성금 기부

대신증권은 신입사원 극기훈련으로 실시된 '사랑의 산악행군' 행사를 통해 적립된 성금 1,380만원을 '유니세프'에 기부하였습니다. 사랑의 행군행사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신입사원들이 상상과 도전의 정신을 함양하고, 직장인으로서의 자세를 정립하고 각오를 다지는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된 행사입니다.

2011. 01. 04

### 매경광고대상 상금 기부

대신증권은 2010년 매경광고대상 수상금 200만원 전액을 청소년 금융교육 사업을 펼치는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에 기부하였습니다.

2010. 12. 23

### 서울대 등 7개 대학에 장학금 전달

대신증권은 서울대, 연대, 고대 등 전국 7개 대학에 총 3억1천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하였습니다. 이번 장학금 전달은 대신송촌문화재단 2010년 하반기 장학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된 것으로 이번에 지급하는 장학금은 각 학교의 장학기금 및 학교발전기금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2010. 11. 29

### 대신송촌문화재단 소외계층 위해 7천만원 성금

대신증권의 사회공헌활동 창구역할을 하고 있는 대신송촌문화재단이 연말을 맞아 소외계층 돕기를 위한 사랑의 성금전달 행사를 가졌습니다. 성금은 가정위탁아동 및 소년소녀가정세대, 노인요양원, 사회복지시설, 지체우 및 장애우 복지시설, 영아원 등 총 12곳의 저소득층, 사회소외계층 지원단체에 전달됐습니다.



2010. 11. 23

### 희망의 집짓기 해비타트

대신증권 직원들은 자발적인 봉사활동 참여로 희망의 집짓기 해비타트 행사에 참가하였습니다.



2010. 11. 23

### 월드컵 붉은 티셔츠 아름다운 가게 증정

대신증권 임직원들이 월드컵 붉은 티셔츠 1,200장을 아름다운 가게에 전달하였습니다. 이 캠페인을 통해 모아진 티셔츠는 '아름다운 가게'에 기증되었고, 아름다운 가게는 이 티셔츠를 국제 구호단체인 유니세프를 통해 아프리카와 제3세계 어린이와 빈민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2010. 07. 30

### 유소년 축구 지원금 전달

대신증권이 월드컵 응원 이벤트로 적립한 지원금 1,000만원을 'MBC 꿈나무축구재단'에 전달하였습니다. 이번 응원 이벤트는 월드컵 기간동안 개인 블로거가 월드컵대표단 응원을 위해 위젯을 블로그에 설치하면 대신증권에서 1,000원의 유소년 축구단 운영비를 적립하는 행사로 많은 블로거들이 참가하였습니다.

# Balance & Promise

조화롭게 함께

성장과 안정의 조화, 그리고 그 성장을 나눔으로써 함께 일구어 가는  
조화로운 세상. 대신증권이 추구하는 '아름다운 동행'의 목적지입니다.  
대신증권은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통해 고객뿐 아니라 주주, 임직원,  
지역사회 모두를 위해 보다 풍요롭고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신뢰받는 아름다운 기업 대신증권은 이제 새로운 50년, 나아가 100년 기업의 미래를  
준비하며 대신증권이 내딛는 한걸음한걸음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는 믿음으로  
모든 이해관계자와 더불어 아름다운 동행을 계속할 것을 약속합니다.

대신증권이 내딛는  
한걸음 한걸음의 원동력은 바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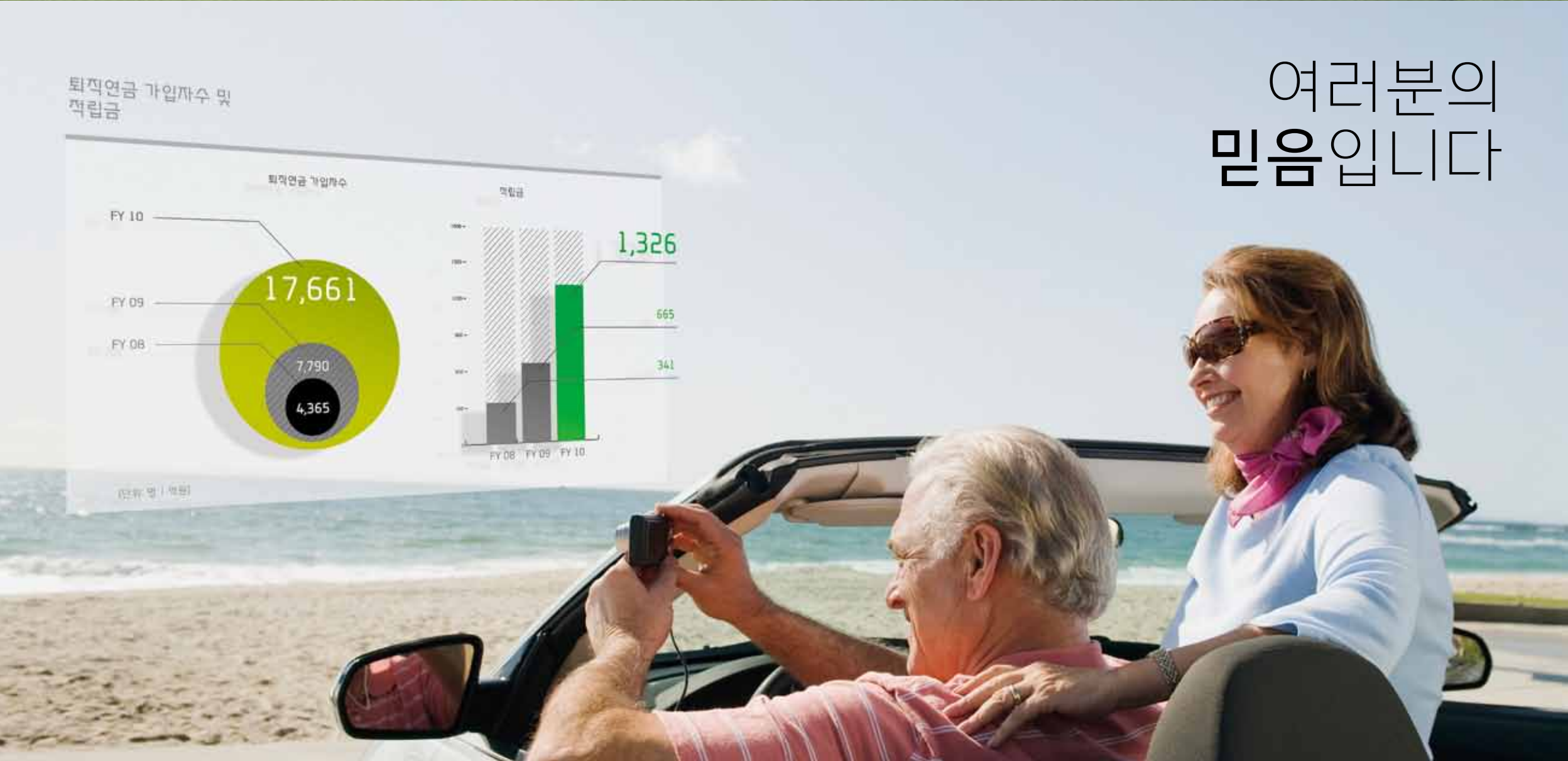
# Balance & Promise

조화롭게 함께

대신증권이 내딛는  
한걸음 한걸음의 원동력은 바로

##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퇴직연금 가입자수 및  
적립금



# Balance & Promise

조화롭게 함께

대신증권이 내딛는  
한걸음 한걸음의 원동력은 바로



## 여러분의 성공입니다

# Balance & Promise

조화롭게 함께

대신증권이 내딛는  
한걸음 한걸음의 원동력은 바로



## 여러분의 행복입니다

# Balance & Promise

조화롭게 함께

대신증권이 내딛는  
한걸음 한걸음의 원동력은 바로

## 여러분입니다



# FINANCIAL REVIEW

- 37 Management's Discussion & Analysis
- 46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 47 재무제표
- 64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보고서
- 65 내부회계관리자의 운영실태 평가보고서

## Management's Discussion & Analysis

### FY2010 BUSINESS HIGHLIGHTS

- 2010년 대내외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기 회복국면 진입, 종합주가지수 사상 최고치 경신하는 강세장 연출
- 기관투자자 주도 장세로 인해 개인투자자 비중이 하락하면서 회사의 수수료수익 감소
-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보유채권에 대한 평가손실 증가, 상품운용수익도 하락세 전환
- 순영업외수지 전년대비 520억원 이상 개선, 유효법인세율 정상화 등에 힘입어 당기순이익이 844억원에 달하는 양호한 경영성과 기록
- 퇴직연금, CMA, 신규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로 고객예탁자산 전년대비 14.4% 증가한 23조5,820억원 달성
- 국내 대형증권사 중 유일하게 13년 연속 현금배당 실시, 시가배당률도 보통주 4.8%, 제1종 우선주 7.8%, 제2종 우선주 8.0%로 업계 최고 수준 기록

### EXECUTIVE SUMMARY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선진국들의 재정확대 정책이 지속되는 가운데, 2010년은 대외적으로 유럽지역 금융불안과 중동지역 정정불안, 대내적으로 연평도 사태로 촉발된 한반도 긴장 고조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가시지 않은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2차 양적 완화 정책 시행, 선진국들의 금융정책 공조, 중국의 두 자릿수 경제성장 등에 힘입어 세계 경기는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둔화 우려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저금리 지속, 물가상승, 경기회복 기대감 등의 영향으로 약화되고, 세계적으로 풍부한 유동성이 한국을 비롯한 신흥시장으로 빠르게 유입되면서 한국의 주식시장은 종합주가지수가 사상 최초로 2,100포인트를 넘어서는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2010회계연도 주식시장 활황에도 불구하고,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은 차별적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유가증권시장은 주요 기업들의 경영실적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함에 따라 외국인투자자와 국내 기관투자자들이 활황, 자동차, IT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중심으로 매수세를 이어가면서 2011년 3월 31일 종합주가지수가 전년대비 24.4% 상승한 2,106.70포인트를 기록하였고, 일평균 거래대금도 전년대비 5.0%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개인투자자 거래비중이 높은 코스닥시장은 오히려 일평균 거래대금이 전년대비 23.5% 감소하면서 상승밸리에서 소외되는 모습을 보이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일평균 거래대금 (단위: 억원)

		FY09	FY10	% YoY
주식	KOSPI	58,232	61,152	5.0
	KOSDAQ	23,263	17,785	(23.5)
선물		355,208	574,907	61.9
옵션		10,480	14,007	33.7

2010회계연도 주식시장이 강세장을 연출하였지만, 기관투자자 주도 장세가 펼쳐지면서 개인투자자 거래비중이 62.8%로 전년대비 4.5%p 하락함에 따라 회사의 수탁수수료 수익은 전년대비 15.4% 감소한 2,794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물가상승 압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채권평가손실이 발생하여 상품운용수익도 하락세로 전환되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순영업외수익이 전년대비 17.7%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영업이익은 50% 이상 위축되면서 일시적인 수익성 둔화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년과 달리 2010회계연도에는 순영업외수지가 전년대비 520억원 이상 증가하였고, 유효법인세율도 예년 수준으로 정상화되면서 당기순이익은 전년대비 소폭 감소에 그친 844억원을 달성하는 양호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한편, 회사의 고객예탁자산은 주식 및 채권뿐만 아니라 퇴직연금, CMA, 신규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 수요에 힘입어 전년대비 14.4% 증가한 23조5,820억원에 달하였습니다. 이는 회사의 미래 수익기반을 강화하고 수익원을 다변화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 Management's Discussion & Analysis

2011년 3월 31일 회사의 자산총계는 전년대비 9.9% 증가한 8조7,972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회사는 국공채와 같은 안전자산을 중심으로 자산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으며, 대어금리와 조달금리 간 스프레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신용공여 및 기대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파생상품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2010회계연도 말 기준 영업용순자본비율과 자산부채비율이 각각 733.9%, 119.3%로 금융감독원 기준을 상회하는 등 재무건전성도 우수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신증권은 국내 대형증권사로는 유일하게 13년 연속 현금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0회계연도 보통주 기준 시가배당률이 증권업계 최고 수준인 4.8%를 기록하는 등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 OPERATING RESULTS

### 운영업수익

2010회계연도 주식시장 활황에도 불구하고 개인투자자 주식매매 비중 축소, 금리인상에 따른 채권평가손실 증가 등의 영향으로 주요 수익원인 브로커리지 수익과 상품운용수익이 감소하였으나, 금융서비스와 자산관리서비스를 강화함으로써 리테일 서비스의 고급화와 차별화를 통해 사업기반을 강화하고 수익구조를 다변화하였습니다.

주식 일평균 거래대금 감소, 개인투자자 비중 축소 등의 영향으로 회사의 브로커리지 수익은 전년대비 13.5% 하락한 2,874억원을 기록한 반면, 주가 상승으로 신용공여금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금융서비스 수익은 전년대비 30.5% 확대된 459억원에 달하였습니다. 또한 안정적 수익원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자산관리서비스 체제를 강화하여 자산관리수수료도 전년대비 8.9% 증가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한편, 상품운용 부문은 국공채와 같은 안전자산을 중심으로 운용함에도 불구하고, 저금리 기초 속에서 인플레이션 우려로 금리인상이 단행되면서 보유채권에 대한 평가손실이 확대되며 상품운용수익이 감소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회사의 2010회계연도 운영업수익은 전년대비 17.7% 감소한 4,281억원을 기록하였으나, 수익구조 측면에서는 전통적으로 강점이 있는 위탁영업부문의 비중 확대와 함께 금융서비스 및 자산관리서비스 등 미래 수익기반사업 부문도 강화함으로써 사업부문간 수익비중이 균형을 이루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운영업수익

	FY09	FY10	% YoY
브로커리지	3,323	2,874	(13.5)
금융서비스 (신용공여)	352	459	30.5
자산관리	171	186	8.9
Capital Markets (상품운용수익)	1,210	619	(48.8)
Investment Banking	123	79	(35.6)
기타	25	64	155.7
합계	5,203	4,281	(17.7)

### 운영업수익 구성비

	FY09	FY10
브로커리지	63.9	67.1
금융서비스 (신용공여)	6.8	10.7
자산관리	3.3	4.3
Capital Markets (상품운용수익)	23.3	14.5
Investment Banking	2.4	1.9
기타	0.5	1.5
합계	100.0	100.0

회사는 미래의 수익기반을 강화하고 수익원을 다변화하기 위해 고객예탁자산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주식과 예탁금 잔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특히 퇴직연금, CMA, 신규파생상품과 같은 고객 맞춤형 투자상품이 고객예탁자산 증가에 기여하였습니다. 회사의 고객예탁자산은 전년대비 14.4% 증가한 23조5,820억원에 달하였습니다.

### 고객예탁자산

	FY09	FY10	% YoY
주식	113,614	142,347	25.3
채권	34,537	33,158	(4.0)
수익증권	33,889	29,553	(12.8)
ELS	13,148	16,766	27.5
예탁금	10,929	13,996	28.1
합계	206,117	235,820	14.4

### 고객예탁자산 구성비

	FY09	FY10
주식	55.1	60.4
채권	16.8	14.1
수익증권	16.4	12.5
ELS	6.4	7.1
예탁금	5.3	5.9
합계	100.0	100.0

펀드시장에서 주식형펀드의 자금 유출이 지속되었으나, 회사의 주식형펀드 잔액은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평잔기준 수익증권 판매잔고는 전년대비 15.5%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저금리 기초가 지속되면서 기대수익률이 양호한 ELS, Wrap Account 등으로 자금 유입이 증가하면서 파생결합증권(ELS) 판매에 따른 수수료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고객예탁자산의 안정적 증가세에 힘입어 자산관리수수료는 전년대비 8.9% 상승한 186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 자산관리수수료

	FY09	FY10	% YoY
집합투자증권	82	81	(1.2)
파생결합증권	75	88	17.4
기타	14	17	21.5
합계	171	186	8.9



# Management's Discussion & Analysis

회사는 안정성과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채권과 신용공여를 통해 이자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2010회계연도 말 국채, 지방채, 특수채, 회사채 등 채권잔액은 전년대비 6.9% 증가한 3조7,858억원, 신용공여금은 전년대비 25.5% 증가한 8,005억원을 기록하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신용공여이자는 스프레드가 400bp 이상을 유지하면서 전년대비 22.7% 증가한 567억원을 기록하였고, 채권이자도 전년대비 14.9% 증가한 1,764억원에 달하였습니다. 회사의 이자수익은 전년대비 43.7% 증가한 3,311억원, 이자비용은 금리 인상에 따른 조달금리 상승으로 전년대비 84.8% 증가한 2,038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2010회계연도 순이자수익은 조달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5.9% 증가한 1,274억원을 달성하였습니다.

이자손익 (단위: 억원)

	FY09	FY10	% YoY
이자수익	2,305	3,311	43.7
채권이자	1,535	1,764	14.9
신용공여이자	463	567	22.7
예금이자	167	155	(7.1)
기타	140	825	487.5
이자비용	1,102	2,038	84.8
순이자수익	1,203	1,274	5.9

## 판매비와관리비

회사는 수익에 연동한 유연한 비용관리를 통해 효율적으로 판매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0회계연도 순영업수익이 감소세를 보임에 따라, 회사는 인건비, 전산운영비, 광고선전비 등 통제가 가능한 판매관리비 항목에 대한 비용절감 노력을 경주하였고, 판매관리비는 전년대비 0.4% 감소한 3,459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판매관리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는 수수료수익 감소로 전년대비 3.8% 하락하였고, 전산운영비는 전년대비 10.6%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새로운 CI 도입에 따른 홍보 강화에도 불구하고, 효율적 광고예산 집행으로 광고선전비는 전년대비 19.9% 감소하였습니다. 한편, 금융서비스 및 자산관리서비스 확대로 지급수수료는 전년대비 8.4%, 신규 온라인 증권거래서비스 및 리스크관리서비스 시스템 개발에 따른 무형자산상각비를 포함한 감가상각비도 전년대비 9.3% 증가하였습니다.

판매비와관리비 (단위: 억원)

	FY09	FY10	% YoY
급여 및 복리후생비	1,974	1,898	(3.8)
전산운영비	231	207	(10.6)
임차료	71	72	1.3
지급수수료	230	249	8.4
광고선전비	216	173	(19.9)
감가상각비	361	395	9.3
기타	391	465	18.9
합계	3,474	3,459	(0.4)

판매비와관리비 구성비 (단위: %)

	FY09	FY10
급여 및 복리후생비	56.8	54.9
전산운영비	6.7	6.0
임차료	2.0	2.1
지급수수료	6.6	7.2
광고선전비	6.2	5.0
감가상각비	10.4	11.4
기타	11.3	13.4
합계	100.0	100.0

## 수익성 및 주주중심경영

2010회계연도 주식시장 활황에도 불구하고 개인투자자 비중이 축소되면서 회사의 핵심 수익원인 브로커리지 부문의 수익이 감소하였고, 금리 인상으로 채권평가손실도 증가하면서 일시적 수익성 둔화가 불가피하였습니다. 회사의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52.4% 하락한 822억원을 기록하였으며, 영업이익률도 3.3%p 감소한 2.0%를 기록하였습니다. 한편, 회사가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종합자산관리서비스 및 금융서비스 부문은 양호한 성장세를 보였으며, 고객예약자산 규모와 구성비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점은 향후의 수익성 전망을 밝게 하고 있습니다.

영업수익성 (단위: 억원, %)

	FY09	FY10	% YoY
영업수익	32,737	41,884	27.9
영업이익	1,728	822	(52.4)
영업이익률	5.3	2.0	(3.3)%p

2010회계연도 회사의 순영업외수지는 전년대비 521억원에 달하는 큰 폭의 개선 추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유형자산처분이익 증가로 영업외수익이 전년대비 69.1% 호전되었고, 지분법손실이 대폭 축소되면서 영업외비용이 전년대비 87.1% 감소한 결과입니다. 2010회계연도 영업이익이 50%를 상회하는 감소세를 보인 반면, 순영업외수지 흑자전환에 힘입어 세전이익은 전년대비 25.9% 하락한 1,105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영업외수지 (단위: 억원)

	FY09	FY10	% YoY
영업외수익	201	339	69.1
영업외비용	438	56	(87.1)
순영업외수익	(238)	283	TIB

# Management's Discussion & Analysis

회사의 영업이익과 세전이익이 두 자릿수 하락세를 보인 것과는 대조적으로 당기순이익은 7.6% 감소에 그쳤는데, 이는 2009회계연도 38.7%에 달했던 유효법인세율이 2010회계연도에 예년 수준으로 회복되면서 법인세 부담이 경감된 것에 기인합니다. 회사는 2009회계연도에 발생한 지분법 손실 398억원에 대해 법인세 손비 인정을 받지 못했으나, 2010회계연도 지분법 손실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유효법인세율이 23.6%로 개선되었습니다. 회사는 844억원에 달하는 당기순이익을 기록하였으며,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을 5% 내외로 유지하는 등 안정적 수익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 (단위: 억원, %)

	FY09	FY10	% YoY
당기순이익	914	844	(7.6)
순이익률	2.8	2.0	(0.8)%p
ROE	5.4	4.9	(0.5)%p

## FINANCIAL CONDITIONS

### 자산

대신증권은 단순한 외형성장보다는 통합적이고 선제적인 리스크관리 및 종합 자산관리서비스 체제를 구축하여 질적 성장을 추구함으로써 최고의 금융전문서비스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1년 3월말 회사의 자산총계는 전년대비 9.9% 증가한 8조7,972억원을 기록하였으며, 현금 및 예치금, 국공채, 대출채권 등과 같은 안전자산 비중이 80%를 상회하도록 자산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안정적인 수익기반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안전성이 높은 자산인 현금 및 예치금 잔액은 전년대비 12.2% 증가한 1조7,716억원에 달하였고, 국공채, 통안채 등 안정성과 환금성이 우수한 채권을 중심으로 구성된 유가증권 잔액도 전년대비 8.9% 증가한 4조7,275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파생상품과 대출채권도 주식시장이 상승장을 연출함에 따라 각각 전년대비 16.2%, 22.2% 증가한 5,159억원, 1조230억원에 달하였습니다.

자산포트폴리오 (단위: 억원)

	FY09	FY10	% YoY
현금 및 예치금	15,794	17,716	12.2
유가증권	43,426	47,275	8.9
파생상품	4,440	5,159	16.2
대출채권	8,373	10,230	22.2
유형자산	5,217	4,792	(8.2)
기타자산	2,782	2,800	0.6
자산총계	80,032	87,972	9.9

### 자산 구성비

(단위: %)

	FY09	FY10
현금 및 예치금	19.7	20.1
유가증권	54.3	53.7
파생상품	5.5	5.9
대출채권	10.5	11.6
유형자산	6.5	5.4
기타자산	3.5	3.2
자산총계	100.0	100.0

### 부채와 자기자본

보유자산 증가와 함께 2011년 3월말 기준 회사의 부채총계는 전년대비 12.1% 증가한 7조890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고객예탁금을 포함한 예수부채는 주식시장 활황세가 이어지면서 전년대비 28.1% 증가한 1조3,996억원에 달하였고, 기준금리 인상으로 조달금리가 상승한 차입부채는 전년대비 7.7% 증가에 그친 5조3,275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주가지수 상승으로 투자자예수금이 전년대비 28.1% 증가한 1조3,996억원, 파생상품 투자수요가 확대되면서 매도파생결합증권 잔액이 전년대비 27.5% 증가한 1조6,766억원에 달하였습니다.

### 부채

(단위: 억원)

	FY09	FY10	% YoY
예수부채	10,929	13,996	28.1
차입부채	49,480	53,275	7.7
기타부채	2,845	3,620	27.2
부채총계	63,254	70,890	12.1

### 부채 구성비

(단위: %)

	FY09	FY10
예수부채	17.3	19.7
차입부채	78.2	75.2
기타부채	4.5	5.1
부채총계	100.0	100.0

# Management's Discussion & Analysis

대신증권은 회사의 이익을 주주에게 환원하는 배당정책을 통해 주주가치 향상을 위한 노력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2010회계연도 844억원에 달하는 당기순이익을 기록하였으나, 현금배당금 지급의 영향으로 이익잉여금 증가세가 소폭에 그치면서 2011년 3월말 회사의 자본총계는 전년대비 1.8% 증가한 1조7,081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대신증권은 한국의 대형증권사로는 유일하게 13년 연속 현금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0회계연도 시가배당률은 보통주 4.8%, 제1종 우선주 7.7%, 제2종 우선주 8.0%로 업계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자기자본 (단위: 억원)

	FY09	FY10	% YoY
자본금	4,349	4,349	0.0
자본잉여금	7,131	7,107	(0.3)
자본조정	(1,412)	(1,336)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747	945	26.4
이익잉여금	5,962	6,016	0.9
자본총계	16,778	17,081	1.8

## 재무건전성 및 리스크관리

2010회계연도 말 회사의 영업용순자본비율은 안정적인 영업용순자본 증가세에 힘입어 733.9%로 전년대비 소폭 개선되었습니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요구하는 장외파생상품 운영기준 300%를 크게 상회하는 우수한 수준입니다. 또한 고정이하 여신 규모도 1,249억원에서 772억원으로 대폭 감소함에 따라 대손충당금 부담이 하락하면서 Coverage Ratio는 92%를 기록하였습니다. 자산부채비율도 금융감독원 기준을 상회하는 120% 내외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재무건전성 지표 (단위: %)

	FY09	FY10	%p YoY
영업용순자본비율	733.6	733.9	0.3
Coverage Ratio	96.6	92.0	(4.6)
자산부채비율	120.9	119.3	(1.6)

대신증권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리스크관리 체계 선진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2010회계연도에는 리스크관리 의사결정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위임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리스크관리집행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유동성리스크 관리를 더욱 강화함과 동시에 예기치 못한 금융위기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스트레스 테스트도 강화하는 등 항시적인 리스크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2009년 10월 "다우존스 한국지속가능경영지수 (DJSI Korea)" 편입에 이어 2010년에도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690개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지배구조를 평가한 결과, 대신증권은 "양호+ (Very Good)" 등급을 획득하면서 15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로써 경영투명성, 주주권리보호, 경영과실배분 등 회사의 모든 프로세스가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국내외에서 인정받았습니다.

## BUSINESS OUTLOOK

2011년의 대내외적 경영환경도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 경쟁 심화, 예상보다 지연되는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 경제 회복, 신흥시장 경제의 인플레이션 우려 등 금융투자업에 우호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이와 같이 급변하는 국내외 경영환경과 경쟁심화에 대비하여 선진화된 리스크관리시스템을 구축함과 동시에 고객가치를 최우선으로 맞춤형 Personal Care 금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중장기 성장기반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크관리 부문에서는 장외파생상품 거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밸류에이션 팀 구성을 통해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체계적이고 공정한 평가 및 검증 시스템을 확립하여 운용위험과 재무위험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또한 IFRS 도입에 따른 심사능력 배양과 심사영역 확대에 따른 프로세스를 재정비하고, 리스크를 고려한 성과평가(RAPM - Risk Adjusted Performance Measurement)를 시행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성과보상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대신증권이 전통적으로 강점을 지니고 있는 위탁영업부문을 강화하고 고객 맞춤형 리스크관리 및 자산관리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특히 고객들의 리스크관리와 자산관리서비스를 통합하여 개인투자자들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고 수익과 리스크 간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금융주치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최근 파생상품 등 다양한 상품시장이 활성화되고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자기자본의 전략적 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창출 기회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010회계연도 국내 증권업계 최초로 인도네시아 온라인 주식시장에 진출한 것을 계기로 대신증권의 선진 온라인 거래 노하우와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외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고, 브로커리지, IB, Wholesale 등의 분야에서 중장기적으로 수익 및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모형을 구축하겠습니다.

대신증권은 고객, 주주, 회사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위대하고 아름다운 회사"로 거듭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 대신증권주식회사 주주 및 이사회 귀중

본 감사인은 첨부된 대신증권주식회사의 2011년 3월 31일과 2010년 3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회계연도의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 자본변동표 및 현금흐름표를 감사하였습니다. 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은 회사 경영자에게 있으며 본 감사인의 책임은 동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이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데 있습니다.

본 감사인은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본 감사인이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확신하도록 감사를 계획하고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재무제표상의 금액과 공시내용을 뒷받침하는 감사증거에 대하여 시사의 방법을 적용하여 검증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내용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경영자가 적용한 회계원칙과 유의적 회계추정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감사인이 실시한 감사가 감사의견 표명을 위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본 감사인은 믿습니다.

본 감사인의 의견으로는 상기 재무제표가 대신증권주식회사의 2011년과 2010년 3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회계연도의 경영성과 그리고 이익잉여금의 변동 및 자본의 변동과 현금흐름의 내용을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삼일회계법인  
대표이사 安昊台

2011년 5월 18일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 (2011년 5월 18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일 이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는 시점까지의 기간 사이에 첨부된 회사의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 재무상태표

제 50 기 2011년 3월 31일 현재  
제 49 기 2010년 3월 31일 현재

(단위: 원)

과 목	제 50 (당) 기	제 49 (전) 기
<b>자 산</b>		
<b>I. 현금및예치금</b>	<b>1,771,564,984,678</b>	<b>1,579,366,594,600</b>
1. 현금및현금성자산	664,333,694,348	525,636,306,224
1) 현금	2,054	1,382
2) 정기예적금	452,810,582,175	343,697,247,223
3) 보통예금	9,966,257,765	13,594,737,958
4) 당좌예금	3,990,672,705	781,481,736
5) 외화예금	175,876,761,824	700,085,148
6) MMDA	7,500,000,000	2,587,961,327
7) MMF	-	30,200,000,000
8) 금융어음	-	27,000,000,000
9) 기타	14,189,417,825	107,074,791,450
2. 예치금	1,107,231,290,330	1,053,730,288,376
1) 투자자예탁금별도예치금 (예금)	105,248,117,180	15,210,000,000
(1) 일반예수분	90,038,117,180	-
(2) 집합투자증권투자자예수분	15,210,000,000	15,210,000,000
2) 투자자예탁금별도예치금 (신탁)	912,736,561,510	1,023,728,943,206
(1) 일반예수분	797,317,871,502	834,332,892,327
(2) 장내파생상품거래분	115,418,690,008	189,396,050,879
3) 장내파생상품거래예치금	15,704,611,640	1,251,845,170
(1) 자기분 (해외)	15,701,298,344	1,251,845,170
(2) 투자자분 (해외)	3,313,296	-
4) 장기성예금	73,500,000,000	13,500,000,000
5) 특정예금 등	42,000,000	39,500,000
<b>II. 유가증권</b>	<b>4,727,465,230,361</b>	<b>4,342,601,784,566</b>
1. 단기매매증권	4,221,295,267,799	3,777,114,437,598
1) 주식	83,034,782,715	75,186,253,013
2) 국채 · 지방채	1,002,363,255,809	859,726,545,166
3) 특수채	1,682,261,259,192	2,071,061,153,037
4) 회사채	1,101,176,089,282	610,168,570,555
5) 집합투자증권	71,458,653,849	33,529,732,839
(1) 매매각집합투자증권	30,384	30,159
(2) 기타집합투자증권	71,458,623,465	33,529,702,680
6) 기업어음증권	65,077,529,135	-
7) 외화증권	215,923,697,817	127,442,182,988
(1) 외화채권	215,923,697,817	127,442,182,988
2. 매도가능증권	294,495,163,907	193,926,549,882
1) 주식	247,577,946,125	135,940,075,905
2) 출자금	1,126,200,000	2,001,200,000

# 재무상태표

제 50 기 2011년 3월 31일 현재  
제 49 기 2010년 3월 31일 현재

(단위: 원)

과 목	제 50 (당) 기	제 49 (전) 기
3) 집합투자증권	26,060,105,331	30,348,877,631
(1) 기타집합투자증권	26,060,105,331	30,348,877,631
4) 외화증권	13,644,421,541	18,911,949,362
(1) 외화채권	13,246,240,752	18,513,768,573
(2) 기타	398,180,789	398,180,789
5) 기타	6,086,490,910	6,724,446,984
3. 지분법적용투자주식	51,348,940,935	48,122,534,237
1) 주식	42,020,696,411	43,448,813,928
2) 출자금	9,328,244,524	4,673,720,309
4. 파생결합증권	160,325,857,720	323,438,262,849
1) 주가연계증권	160,325,857,720	323,153,950,824
2) 기타	-	284,312,025
<b>Ⅲ. 파생상품</b>	<b>515,921,803,812</b>	<b>443,969,688,429</b>
1. 장내파생상품	11,075,144,220	-
1) 매수옵션	9,617,356,000	-
2) 파생상품자산	1,457,788,220	-
(1) 이자율	2,941,000	-
(2) 주식	1,362,432,004	-
(3) 기타	92,415,216	-
2. 장외파생상품	504,846,659,592	443,969,688,429
1) 파생상품자산	504,846,659,592	443,969,688,429
(1) 이자율	26,076,360,534	632,751,257
(2) 통화	20,152,263,461	6,078,649,147
(3) 주식	434,040,656,057	428,460,652,039
(4) 신용	8,727,112,622	4,285,186,977
(5) 기타	15,850,266,918	4,512,449,009
<b>Ⅳ. 대출채권</b>	<b>1,023,032,784,485</b>	<b>837,278,685,694</b>
1. 콜론	-	270,000,000
2. 신용공여금	800,536,399,867	637,717,165,902
1) 신용거래용자금	380,821,181,436	312,496,280,688
2) 증권담보대출금	418,241,718,431	324,830,845,214
3) 기타	1,473,500,000	390,040,000
3. 환매조건부매수	179,600,000,000	143,170,000,000
4. 대여금	7,957,142,066	7,413,984,192
1) 임직원대여금	7,123,428,000	6,580,653,660
2) 기타	833,714,066	833,330,532
5. 매입대출채권	548,841,082	1,222,279,075
6. 대지금	38,463,764,849	48,413,398,624
1) 사채지급보증대지금	31,639,781,497	41,463,020,652

(단위: 원)

과 목	제 50 (당) 기	제 49 (전) 기
2) 사고대지금	3,186,323,696	3,312,718,316
3) 우선대지금	3,637,659,656	3,637,659,656
7. 부도채권	31,924,759,830	41,728,633,260
8. 부도어음	-	23,481,299,577
9. 사모사채	29,680,002,721	46,329,425,837
10. 대손충당금	(65,678,125,930)	(112,467,500,773)
1) 신용공여금대손충당금	(4,011,530,668)	(3,188,682,675)
2) 대여금대손충당금	(868,542,531)	(865,826,742)
3) 매입대출채권대손충당금	(2,744,206)	(6,111,396)
4) 대지금대손충당금	(33,265,880,418)	(43,146,842,804)
5) 부도채권대손충당금	(26,748,001,318)	(38,626,193,198)
6) 부도어음대손충당금	-	(23,481,299,577)
7) 사모사채대손충당금	(781,426,789)	(3,152,544,381)
<b>V. 유형자산</b>	<b>479,203,404,102</b>	<b>521,748,424,539</b>
1. 토지	250,145,015,219	260,906,809,941
2. 건물	249,314,987,488	278,414,359,654
3. 차량운반구	946,743,265	882,044,168
4. 비품	185,143,010,493	204,008,034,812
5. 건설중인자산	2,084,060,000	1,577,180,000
6. 감가상각누계액	(208,430,412,363)	(224,040,004,036)
1) 건물	(71,067,972,825)	(71,324,750,690)
2) 차량운반구	(588,852,934)	(487,299,538)
3) 비품	(136,773,586,604)	(152,227,953,808)
<b>Ⅵ. 기타자산</b>	<b>279,965,666,627</b>	<b>278,206,530,569</b>
1. 미수금	76,273,913,782	60,601,414,921
1) 자기매매미수금	47,755,491,010	46,040,643,030
(1) 주식미수금	41,342,249,730	8,980,588,590
(2) 채권미수금	3,026,400,000	-
(3) 장내파생상품미수금	2,132,785,150	37,032,964,050
(4) 기타	1,254,056,130	27,090,390
2) 위탁매매미수금	8,081,459,902	8,415,788,947
(1) 주식미수금	7,636,434,087	6,896,703,098
(2) 장내파생상품미수금	445,025,815	1,519,085,849
3) 기타	20,436,962,870	6,144,982,944
2. 미수수익	38,538,296,249	43,331,423,816
1) 미수수료	4,061,076,086	3,699,122,773
(1) 미수수탁수수료	2,322,484,297	1,806,582,412
(2) 미수집합투자증권수수료	1,030,345,139	1,350,732,418
(3) 미수투자일임수수료	29,449,603	42,453,375

# 재무상태표

제 50 기 2011년 3월 31일 현재  
제 49 기 2010년 3월 31일 현재

(단위: 원)

과 목	제 50 (당) 기	제 49 (전) 기
(4) 미수투자신탁보수	678,797,047	499,354,568
2) 미수이자	29,756,739,509	34,605,444,585
(1) 미수신용거래용자이자	1,734,513,903	1,445,452,237
(2) 미수채권이자	23,290,435,370	26,900,338,188
(3) 기타	4,731,790,236	6,259,654,160
3) 미수배당금	988,347,005	3,663,583,620
4) 기타	3,732,133,649	1,363,272,838
3. 선급금	17,034,106,569	17,576,941,861
1) 채권경과이자	15,221,573,562	12,989,760,647
2) 기타	1,812,533,007	4,587,181,214
4. 선급비용	671,945,920	1,090,005,475
5. 선급법인세	2,000,469,040	-
6. 보증금	66,431,462,929	63,671,446,363
1) 전신전화가입권	402,702,090	405,554,090
2) 임차보증금	66,027,760,839	63,264,892,273
3) 회원보증금	1,000,000	1,000,000
7. 투자부동산	10,691,382,950	10,691,382,950
8. 손해배상공동기금	6,710,328,272	6,229,887,266
1) 증권시장공동기금	3,053,535,752	3,370,190,455
2) 파생상품시장공동기금	3,656,792,520	2,859,696,811
9. 무형자산	40,076,083,314	50,306,488,555
1) 개발비	26,915,844,578	31,027,709,846
2) 기타	13,160,238,736	19,278,778,709
10. 기타	26,893,904,141	32,911,393,796
11. 대손충당금	(5,356,226,539)	(8,203,854,434)
1) 미수금대손충당금	(4,110,090,776)	(5,946,441,816)
2) 미수수익대손충당금	(1,242,528,296)	(2,253,354,218)
(1) 미수수료대손충당금	(20,305,380)	(18,495,613)
(2) 미수이자대손충당금	(274,486,725)	(290,893,192)
(3) 기타대손충당금	(947,736,191)	(1,943,965,413)
3) 기타대손충당금	(3,607,467)	(4,058,400)
<b>자산총계</b>	<b>8,797,153,874,065</b>	<b>8,003,171,708,397</b>
<b>부 채</b>		
<b>I. 예수부채</b>	<b>1,399,599,024,879</b>	<b>1,092,887,768,613</b>
1. 투자자예수금	1,399,599,024,879	1,092,887,768,613
1) 위탁자예수금	1,003,698,107,543	825,737,510,302
2) 장내파생상품거래예수금	372,014,214,420	241,863,204,988
3) 저축자예수금	6,432,957,678	7,536,830,916
4) 조건부예수금	2,222,524,881	2,625,977,993

(단위: 원)

과 목	제 50 (당) 기	제 49 (전) 기
5) 집합투자증권예수금	15,227,124,597	15,095,997,329
6) 기타	4,095,760	28,247,085
<b>II. 차입부채</b>	<b>5,327,468,279,698</b>	<b>4,947,987,190,676</b>
1. 콜머니	400,000,000,000	485,000,000,000
2. 차입금	430,662,424,347	292,876,182,835
1) 증금차입금	275,662,424,347	292,876,182,835
2) 기타	155,000,000,000	-
3. 환매조건부매도	2,284,861,085,676	2,715,353,101,954
4. 매도유가증권	51,032,541,420	34,394,428,220
1) 주식	40,390,041,420	33,911,190,660
2) 기타	10,642,500,000	483,237,560
5. 매도파생결합증권	1,676,625,738,528	1,314,770,477,055
1) 매도주가연계증권	864,630,362,360	705,566,674,545
2) 매도주식워런트증권	268,842,809,954	417,795,998,362
3) 기타	543,152,566,214	191,407,804,148
6. 파생상품	364,644,064,776	45,812,760,126
1) 장내파생상품	6,678,756,630	122,000,000
(1) 매도옵션	6,425,070,501	122,000,000
(2) 파생상품부채	253,686,129	-
가. 이자율	17,905,528	-
나. 주식	235,780,601	-
2) 장외파생상품	357,965,308,146	45,690,760,126
(1) 파생상품부채	357,965,308,146	45,690,760,126
가. 이자율	9,532,729,725	12,500,704,153
나. 통화	11,523,778,067	2,957,350,018
다. 주식	321,351,024,499	5,704,893,211
라. 신용	10,051,074,321	140,863,756
마. 기타	5,506,701,534	24,386,948,988
7. 사채	120,000,000,000	60,000,000,000
(사채발행차금)	(357,575,049)	(219,759,514)
<b>III. 기타부채</b>	<b>361,981,795,342</b>	<b>284,527,260,087</b>
1. 퇴직급여충당부채	5,632,247,563	4,923,654,673
(퇴직연금운용자산)	(3,962,315,633)	(3,455,955,082)
2. 미지급법인세	-	59,870,235,399
3. 미지급배당금	37,433,752	26,098,852
4. 미지급금	92,790,939,561	103,869,209,360
5. 미지급비용	21,246,592,401	20,423,724,571
6. 임대보증금	49,393,603,149	56,571,735,405
7. 선수수익	1,704,564,117	200,692,010

# 재무상태표

제 50 기 2011년 3월 31일 현재  
제 49 기 2010년 3월 31일 현재

(단위: 원)

과목	제 50 (당) 기	제 49 (전) 기
8. 이연법인세부채	33,483,962,398	35,576,132,415
9. 제세금예수금	5,493,034,054	5,135,025,304
10. 기타	156,161,733,980	1,386,707,180
<b>부채총계</b>	<b>7,089,049,099,919</b>	<b>6,325,402,219,376</b>
<b>자본</b>		
<b>I. 자본금</b>	<b>434,867,000,000</b>	<b>434,867,000,000</b>
1. 보통주자본금	254,867,000,000	254,867,000,000
2. 우선주자본금	180,000,000,000	180,000,000,000
1) 기타	180,000,000,000	180,000,000,000
<b>II. 자본잉여금</b>	<b>710,721,489,617</b>	<b>713,145,970,620</b>
1. 주식발행초과금	611,491,820,133	611,491,820,133
2. 자기주식처분이익	8,200,771,816	10,625,252,819
3. 기타자본잉여금	91,028,897,668	91,028,897,668
<b>III. 자본조정</b>	<b>(133,602,166,217)</b>	<b>(141,203,280,179)</b>
1. 자기주식	(134,296,610,176)	(141,131,091,179)
2. 기타	694,443,959	(72,189,000)
<b>IV. 기타포괄손익누계액</b>	<b>94,502,628,353</b>	<b>74,737,527,048</b>
1.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96,298,686,554	73,186,961,343
1) 주식	101,053,893,531	78,817,201,504
2) 집합투자증권	(4,173,656,209)	(5,179,013,305)
3) 외화증권	(581,550,768)	(451,226,856)
(1) 외화채권	(581,550,768)	(451,226,856)
2. 지분법자본변동	1,404,415,959	1,550,565,705
3. 파생상품평가손익	(3,200,474,160)	-
<b>V. 이익잉여금</b>	<b>601,615,822,393</b>	<b>596,222,271,532</b>
1. 이익준비금	113,774,901,830	105,873,453,540
2. 임의적립금	380,000,000,000	370,000,000,000
3. 미처분이익잉여금	107,840,920,563	120,348,817,992
<b>자본총계</b>	<b>1,708,104,774,146</b>	<b>1,677,769,489,021</b>
<b>부채와자본총계</b>	<b>8,797,153,874,065</b>	<b>8,003,171,708,397</b>

# 손익계산서

제 50기 2010년 4월 1일부터 2011년 3월 31일까지  
제 49기 2009년 4월 1일부터 2010년 3월 31일까지

(단위: 원)

과목	제 50 (당) 기	제 49 (전) 기
<b>I. 영업수익</b>	<b>4,188,383,339,117</b>	<b>3,273,708,008,760</b>
<b>1. 수수료수익</b>	<b>311,804,404,800</b>	<b>361,643,566,359</b>
1) 수탁수수료	279,392,418,868	330,416,150,497
(1) 유가증권시장	161,845,673,112	185,055,393,973
(2) 코스닥시장	68,984,078,729	101,589,976,262
(3) 파생상품시장	47,016,038,363	43,017,053,080
(4) 외화증권수탁	188,867,433	29,719,928
(5) 채권장외중개	1,318,736,841	702,846,438
(6) 해외파생상품	10,970,100	-
(7) 기타	28,054,290	21,160,816
2) 인수및주선수수료	6,127,242,359	8,960,391,857
(1) 원화증권	6,127,242,359	8,960,391,857
3) 사채모집수탁수수료	20,000,000	18,000,000
4) 집합투자증권취급수수료	8,101,517,466	8,199,197,770
(1) 판매수수료	859,305,285	984,590,372
(2) 판매보수	7,242,212,181	7,214,607,398
5) 자산관리수수료	201,987,969	220,470,928
(1) 투자일임	156,987,969	220,470,928
(2) 기타	45,000,000	-
6) 매수및합병수수료	1,774,410,000	3,328,831,690
(1) 매수및합병중개수수료	15,000,000	145,000,000
(2) 구조조정및금융상담수수료	1,759,410,000	3,183,831,690
7) 파생결합증권판매수수료	8,763,498,645	7,455,459,511
(1) 추가연계증권	2,727,978,452	2,984,878,778
(2) 주식워런트증권	5,239,690,536	4,208,112,923
(3) 기타	795,829,657	262,467,810
8) 신탁보수	1,499,639,449	1,180,079,646
(1) 금전신탁	1,499,639,449	1,180,079,646
9) 송금수수료	145,735,101	61,099,690
10) 기타	5,777,954,943	1,803,884,770
<b>2. 유가증권평가및처분이익</b>	<b>2,542,414,237,296</b>	<b>1,875,986,282,882</b>
1) 단기매매증권처분이익	110,960,236,665	106,405,008,600
(1) 주식처분이익	65,776,194,630	59,807,695,290
(2) 신주인수권증서처분이익	12,633	2,147,387,606
(3) 채권처분이익	42,002,377,702	32,244,560,283
(4) 집합투자증권처분이익	2,188,369,780	11,103,232,915
(5) 기업어음처분이익	607,871,864	24,064,659
(6) 단기매매증권상환이익	385,410,056	511,975,990
(7) 기타	-	566,091,857

# 손익계산서

제 50기 2010년 4월 1일부터 2011년 3월 31일까지  
제 49기 2009년 4월 1일부터 2010년 3월 31일까지

(단위: 원)

과목	제 50 (당) 기	제 49 (전) 기
2)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	11,061,496,457	35,713,516,971
(1) 주식평가이익	3,663,428,266	4,125,049,177
(2) 채권평가이익	7,310,180,948	30,933,753,800
(3) 집합투자증권평가이익	75,916,111	654,713,994
(4) 기업어음증권평가이익	11,971,132	-
3)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	1,403,155,515
(1) 주식처분이익	-	821,039,490
(2) 집합투자증권처분이익	-	429,186,760
(3) 기타	-	152,929,265
4) 유가증권감액손실환입	2,698,423,418	49,772,599
5) 매도유가증권평가이익	520,407,615	436,222,199
(1) 주식평가이익	520,407,615	436,222,199
6) 파생결합증권처분이익	10,650,000	158,542,595
(1) 주식워런트증권	10,650,000	158,542,595
7) 파생결합증권평가이익	6,574,476,117	74,283,287,110
(1) 추가연계증권	6,574,476,117	74,283,287,110
8) 파생결합증권상환이익	12,995,585,544	138,021,356,924
(1) 추가연계증권	12,919,820,344	137,729,161,177
(2) 기타	75,765,200	292,195,747
9) 매도파생결합증권평가이익	839,182,122,123	625,047,751,342
(1) 매도추가연계증권	1,067,739,259	1,552,426,121
(2) 매도주식워런트증권	829,593,116,803	615,202,956,665
(3) 기타	8,521,266,061	8,292,368,556
10) 매도파생결합증권상환이익	1,558,410,839,357	894,467,669,027
(1) 매도추가연계증권	35,128,370,918	3,737,474,142
(2) 매도주식워런트증권	1,523,186,223,712	890,604,427,356
(3) 기타	96,244,727	125,767,529
<b>3. 파생상품거래이익</b>	<b>939,525,572,551</b>	<b>763,148,243,844</b>
1) 장내파생상품거래이익	175,971,213,622	189,303,926,665
(1) 선물매매이익	101,326,932,250	172,062,422,250
(2) 선물정산이익	3,932,704,000	1,171,938,000
(3) 해외선물거래이익	26,675,653,887	557,009,415
(4) 옵션매매이익	37,370,950,000	15,417,757,000
(5) 옵션평가이익	6,147,656,000	94,800,000
(6) 해외옵션거래이익	517,317,485	-
2) 장외파생상품거래이익	763,554,358,929	573,844,317,179
(1) 장외파생상품매매이익	661,506,872,858	512,073,894,559
(2) 장외파생상품평가이익	102,047,486,071	61,770,422,620
<b>4. 이자수익</b>	<b>331,139,762,862</b>	<b>230,503,021,146</b>

(단위: 원)

과목	제 50 (당) 기	제 49 (전) 기
1) 신용공여이자	56,730,911,798	46,250,711,630
(1) 신용거래용이자	29,611,140,317	22,455,416,062
(2) 증권매입자금대출이자	-	124,516,571
(3) 예탁증권담보대출이자	27,038,890,938	23,589,290,939
(4) 기타	80,880,543	81,488,058
2) 매입대출채권이자	844,521,854	154,180,460
3) 대출금이자	122,739,726	-
4) 채권이자	176,399,521,339	153,541,798,894
5) 기업어음증권이자	1,399,358,841	142,332,281
6) 증금예치금이자	770,392,502	398,448,916
7) 금융기관예치금이자	147,334,060	286,984,095
8) 콜론이자	392,773,346	269,861,314
9) 환매조건부매수이자	2,492,128,912	1,770,494,335
10) 양도성예금증서거래이익	12,205,715	9,216,514
11) 대지급금이자	64,451,491	167,222,857
12) 예금이자	15,484,733,635	16,666,588,730
13) 미수금이자	972,560,790	1,533,971,033
14) 기타이자	75,306,128,853	9,311,210,087
<b>5. 대출채권평가및처분이익</b>	<b>12,701,116</b>	<b>7,176,791,727</b>
1) 대출채권매각이익	12,701,116	2,719,596,878
2) 대손충당금환입	-	4,457,194,849
<b>6. 외환거래이익</b>	<b>26,509,359,472</b>	<b>482,973,957</b>
1) 외환차익	13,896,724,323	481,040,744
2) 외환환산이익	12,612,635,149	1,933,213
<b>7. 기타의영업수익</b>	<b>36,977,301,020</b>	<b>34,767,128,845</b>
1) 배당금수익	5,678,831,261	5,068,087,894
2) 분배금수익	2,292,262,693	1,375,045,866
3) 별도예치금평가이익	28,603,044,522	27,868,047,036
4) 기타대손충당금환입	403,162,544	60,649,544
5) 기타	-	395,298,505
<b>II. 영업비용</b>	<b>4,106,194,702,565</b>	<b>3,100,879,343,588</b>
<b>1. 수수료비용</b>	<b>15,299,687,574</b>	<b>21,939,676,445</b>
1) 매매수수료	12,796,375,513	13,360,948,482
(1) 국내분	12,285,406,899	13,340,194,500
(2) 해외분	510,968,614	20,753,982
2) 투자상담사수수료	-	5,008,321,442
3) 송금수수료	621,148,851	1,029,028,045
4) 기타수수료비용	1,882,163,210	2,541,378,476
<b>2. 유가증권평가및처분손실</b>	<b>1,031,751,948,950</b>	<b>979,335,020,590</b>



# 손익계산서

제 50기 2010년 4월 1일부터 2011년 3월 31일까지  
제 49기 2009년 4월 1일부터 2010년 3월 31일까지

(단위: 원)

과목	제 50 (당) 기	제 49 (전) 기
1) 단기매매증권처분손실	95,775,640,601	91,942,871,056
(1) 주식처분손실	47,088,494,504	45,700,308,931
(2) 신주인수권증서처분손실	-	12,450,118
(3) 채권처분손실	40,583,743,476	32,616,884,441
(4) 집합투자증권처분손실	498,090,640	6,237,369,292
(5) 단기매매증권상환손실	7,605,311,981	7,375,858,274
2) 단기매매증권평가손실	36,236,280,102	6,675,762,606
(1) 주식평가손실	7,275,734,397	1,225,291,141
(2) 채권평가손실	28,199,723,657	5,446,137,007
(3) 집합투자증권평가손실	726,380,051	4,334,458
(4) 기업어음증권평가손실	34,441,997	-
3) 매도가능증권처분손실	854,795,115	766,049,932
(1) 주식처분손실	746,720,868	273,899,340
(2) 채권처분손실	108,074,247	-
(3) 매도가능증권상환손실	-	391,809,897
(4) 기타	-	100,340,695
4) 유가증권감액손실	4,750,473,419	1,044,882,344
5) 매도유가증권평가손실	3,048,280,200	1,543,677,322
(1) 주식평가손실	2,701,777,431	1,495,260,835
(2) 기타	346,502,769	48,416,487
6) 파생결합증권처분손실	20,450,500	759,066,454
(1) 주식워런트증권	20,450,500	759,066,454
7) 파생결합증권평가손실	792,402,247	1,150,428,034
(1) 주가연계증권	792,402,247	791,769,478
(2) 기타	-	358,658,556
8) 파생결합증권상환손실	29,422,152,462	3,584,245,671
(1) 주가연계증권	29,422,075,237	3,458,078,142
(2) 주식워런트증권	-	400,000
(3) 기타	77,225	125,767,529
9) 매도파생결합증권평가손실	82,916,383,519	138,872,077,304
(1) 매도주가연계증권	30,559,331,276	101,574,213,568
(2) 매도주식워런트증권	22,139,838,412	33,023,087,950
(3) 기타	30,217,213,831	4,274,775,786
10) 매도파생결합증권상환손실	777,935,090,785	732,995,959,867
(1) 매도주가연계증권	40,926,971,409	322,886,089,664
(2) 매도주식워런트증권	732,504,361,941	409,818,013,013
(3) 기타	4,503,757,435	291,857,190
<b>3. 파생상품거래손실</b>	<b>2,485,628,071,222</b>	<b>1,634,661,714,069</b>
1) 장내파생상품거래손실	183,013,203,456	209,459,922,996

(단위: 원)

과목	제 50 (당) 기	제 49 (전) 기
(1) 선물매매손실	109,977,380,750	177,290,016,944
(2) 선물정산손실	2,693,302,500	464,141,750
(3) 해외선물거래손실	18,657,378,619	722,159,302
(4) 옵션매매손실	45,366,948,000	30,983,605,000
(5) 옵션평가손실	6,086,488,000	-
(6) 해외옵션거래손실	231,705,587	-
2) 장외파생상품거래손실	2,302,614,867,766	1,425,201,791,073
(1) 장외파생상품처분손실	1,438,318,002,419	792,329,935,642
(2) 장외파생상품평가손실	864,296,865,347	632,871,855,431
<b>4. 이자비용</b>	<b>203,758,268,964</b>	<b>110,235,308,823</b>
1) 차입금이자	10,961,173,950	11,124,767,419
(1) 증금차입금이자	10,937,003,191	11,062,920,428
(2) 은행차입금이자	24,170,759	61,846,991
2) 투자자예탁금이용료	7,018,212,008	6,009,335,435
3) 환매조건부매도이자	68,370,621,557	57,799,752,339
4) 콜머니이자	13,297,560,183	9,262,498,712
5) 사채이자	6,090,284,465	4,000,242,742
6) 기타	98,020,416,801	22,038,712,176
<b>5. 대출채권평가및처분손실</b>	<b>1,043,320,910</b>	<b>6,674,042,690</b>
1) 대출채권매각손실	442,280	6,674,042,690
2) 대손상각비	1,042,878,630	-
<b>6. 외환거래손실</b>	<b>22,764,670,966</b>	<b>600,729,952</b>
1) 외환차손	9,520,821,131	279,367,655
2) 외환환산손실	13,243,849,835	321,362,297
<b>7. 판매비와관리비</b>	<b>345,920,862,738</b>	<b>347,432,851,019</b>
1) 급여	87,744,029,108	89,476,763,794
(1) 임원	3,323,812,000	3,142,360,200
(2) 직원	84,420,217,108	86,334,403,594
2) 퇴직급여	9,395,830,292	9,557,586,620
(1) 임원	872,890,386	932,207,282
(2) 직원	8,522,939,906	8,625,379,338
3) 복리후생비	92,689,218,974	98,325,162,971
4) 전산운용비	20,685,001,803	23,127,786,787
5) 임차료	7,224,976,826	7,133,307,777
6) 지급수수료	24,876,694,569	22,952,568,528
7) 접대비	3,542,282,148	3,386,926,947
8) 광고선전비	17,317,802,145	21,629,858,682
9) 감가상각비	27,022,188,284	27,109,570,559
10) 연수비	1,648,838,411	866,691,255

# 손익계산서

제 50기 2010년 4월 1일부터 2011년 3월 31일까지  
제 49기 2009년 4월 1일부터 2010년 3월 31일까지

(단위: 원)

과목	제 50 (당) 기	제 49 (전) 기
11) 무형자산상각비	12,471,285,898	9,022,903,020
12) 세금과공과금	17,554,810,779	13,929,241,174
13) 업무위탁수수료	920,884,273	1,017,146,581
14) 등기소송비 및 공고비	17,072,000	68,377,925
15) 회의비	8,554,350	14,915,540
16) 인쇄비	1,819,707,208	1,828,655,602
17) 여비교통비	1,161,894,933	1,024,022,386
18) 차량유지비	895,712,183	824,457,092
19) 소모품비	404,502,247	375,108,884
20) 수도광열비	3,874,295,623	4,161,812,632
21) 보험료	2,391,820,679	1,914,402,185
22) 행사비	4,207,892,919	2,123,804,383
23) 기타	8,045,567,086	7,561,779,695
<b>8. 기타의영업비용</b>	<b>27,871,241</b>	-
1) 기타	27,871,241	-
<b>Ⅲ. 영업이익</b>	<b>82,188,636,552</b>	<b>172,828,665,172</b>
<b>Ⅳ. 영업외수익</b>	<b>33,911,624,964</b>	<b>20,057,139,513</b>
1. 유형자산처분이익	17,692,801,759	3,389,228,919
2. 임대료	10,832,068,142	12,494,467,069
3. 지분법이익	908,856,558	1,094,309,437
4. 지분법적용투자주식처분이익	36,145,155	-
5. 상각채권추심이익	62,427,528	5,263,359
6. 기타	4,379,325,822	3,073,870,729
<b>Ⅴ. 영업외비용</b>	<b>5,639,044,305</b>	<b>43,844,956,618</b>
1. 유형자산처분손실	1,863,930,796	2,428,847,133
2. 지분법손실	1,713,210,975	39,787,898,741
3. 기부금	1,285,247,000	1,234,624,000
4. 기타	776,655,534	393,586,744
<b>Ⅵ.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b>	<b>110,461,217,211</b>	<b>149,040,848,067</b>
<b>Ⅶ. 법인세비용</b>	<b>26,053,183,450</b>	<b>57,685,316,860</b>
<b>Ⅷ. 당기순이익</b>	<b>84,408,033,761</b>	<b>91,355,531,207</b>
<b>Ⅸ. 주당이익</b>		
기본주당순이익 (단위: 원)	1,072	1,190
희석주당순이익 (단위: 원)	1,071	1,190

# 이익잉여금처분 계산서

제 50기 2010년 4월 1일부터 2011년 3월 31일까지 | 처분예정일 2011년 5월 27일  
제 49기 2009년 4월 1일부터 2010년 3월 31일까지 | 처분확정일 2010년 5월 28일

(단위: 원)

과목	제 50 (당) 기	제 49 (전) 기
<b>I. 미처분이익잉여금</b>	<b>107,840,920,563</b>	<b>120,348,817,992</b>
1. 전기이월이익잉여금	23,432,886,802	28,993,286,785
2. 당기순이익	84,408,033,761	91,355,531,207
<b>II. 이익잉여금처분액</b>	<b>86,245,185,990</b>	<b>96,915,931,190</b>
1. 이익준비금	5,976,835,090	7,901,448,290
2. 전자배상책임준비금	500,000,000	-
3. 배당금		
가. 현금배당금		
주당배당금(률)		
당기: 보통주 - 750원 (15%)		
우선주 - 800원 (16%)		
2우선주 - 750원 (15%)		
전기: 보통주 - 1,000원 (20%)		
우선주 - 1,050원 (21%)		
2우선주 - 1,000원 (20%)		
59,768,350,900		79,014,482,900
4. 임의적립금	20,000,000,000	10,000,000,000
<b>III. 차기이월이익잉여금</b>	<b>21,595,734,573</b>	<b>23,432,886,802</b>

# 자본변동표

제 50기 2010년 4월 1일부터 2011년 3월 31일까지  
제 49기 2009년 4월 1일부터 2010년 3월 31일까지

(단위: 원)

과 목	자 본 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총 계
<b>2009.4.1 (보고금액)</b>	<b>434,867,000,000</b>	<b>715,771,295,924</b>	<b>(139,041,646,251)</b>	<b>61,081,073,608</b>	<b>584,941,229,275</b>	<b>1,657,618,952,556</b>
연차배당	-	-	-	-	(80,074,488,950)	(80,074,488,950)
처분후 이익잉여금	-	-	-	-	504,866,740,325	1,577,544,463,606
당기순이익	-	-	-	-	91,355,531,207	91,355,531,207
자기주식의 변동	-	(2,625,325,304)	(2,089,444,928)	-	-	(4,714,770,232)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	-	-	15,390,165,352	-	15,390,165,352
지분법자본변동	-	-	(72,189,000)	(1,733,711,912)	-	(1,805,900,912)
<b>2010.3.31 (전기말)</b>	<b>434,867,000,000</b>	<b>713,145,970,620</b>	<b>(141,203,280,179)</b>	<b>74,737,527,048</b>	<b>596,222,271,532</b>	<b>1,677,769,489,021</b>
<b>2010.4.1 (보고금액)</b>	<b>434,867,000,000</b>	<b>713,145,970,620</b>	<b>(141,203,280,179)</b>	<b>74,737,527,048</b>	<b>596,222,271,532</b>	<b>1,677,769,489,021</b>
연차배당	-	-	-	-	(79,014,482,900)	(79,014,482,900)
처분후 이익잉여금	-	-	-	-	517,207,788,632	1,598,755,006,121
당기순이익	-	-	-	-	84,408,033,761	84,408,033,761
자기주식의 변동	-	(2,424,481,003)	6,834,481,003	-	-	4,410,000,000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	-	-	23,111,725,211	-	23,111,725,211
지분법자본변동	-	-	-	(146,149,746)	-	(146,149,746)
파생상품평가손실	-	-	-	(3,200,474,160)	-	(3,200,474,160)
기타	-	-	766,632,959	-	-	766,632,959
<b>2011.3.31 (당기말)</b>	<b>434,867,000,000</b>	<b>710,721,489,617</b>	<b>(133,602,166,217)</b>	<b>94,502,628,353</b>	<b>601,615,822,393</b>	<b>1,708,104,774,146</b>

# 현금흐름표

제 50기 2010년 4월 1일부터 2011년 3월 31일까지  
제 49기 2009년 4월 1일부터 2010년 3월 31일까지

(단위: 원)

과 목	제 50 (당) 기	제 49 (전) 기
<b>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b>	<b>383,840,919,402</b>	<b>(541,451,935,687)</b>
1. 당기순이익	84,408,033,761	91,355,531,207
2.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등의 가산	3,569,086,896,492	2,708,398,809,123
가. 단기매매증권처분손실	95,775,640,601	91,942,871,056
나. 단기매매증권평가손실	36,236,280,102	6,675,762,606
다. 매도가능증권처분손실	854,795,115	766,049,932
라. 파생결합증권처분손실	20,450,500	759,066,454
마. 파생결합증권평가손실	792,402,247	1,150,428,034
바. 파생결합증권상환손실	29,422,152,462	3,584,245,671
사. 매도파생결합증권평가손실	82,916,383,519	138,872,077,304
아. 매도파생결합증권상환손실	777,935,090,785	732,995,959,867
자. 파생상품거래손실	2,485,628,071,222	1,634,661,714,069
차. 매도유가증권평가손실	3,048,280,200	1,543,677,322
카. 대손상각비	1,042,878,630	-
타. 감가상각비	27,022,188,284	27,109,570,559
파. 무형자산상각비	12,471,285,898	9,022,903,020
하. 유형자산처분손실	1,863,930,796	2,428,847,133
거. 유가증권감액손실	4,750,473,419	1,044,882,344
네. 퇴직급여	872,890,386	932,207,282
더. 지분법손실	1,713,210,975	39,787,898,741
러. 대출채권매각손실	442,280	6,674,042,690
머. 외화환산손실	575,710,000	321,362,297
버. 사채할인발행차금의 상각	177,284,465	100,242,742
서.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	790,421,647	-
어. 복리후생비	4,410,000,000	8,025,000,000
저. 급여	766,632,959	-
3. 현금의 유입이 없는 수익등의 차감	(3,541,753,116,771)	(2,679,002,333,291)
가. 단기매매증권처분이익	110,960,236,665	106,405,008,600
나.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	11,061,496,457	35,713,516,971
다.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	1,403,155,515
라. 유가증권감액손실환입	2,698,423,418	49,772,599
마. 파생결합증권처분이익	10,650,000	158,542,595
바. 파생결합증권평가이익	6,574,476,117	74,283,287,110
사. 파생결합증권상환이익	12,995,585,544	138,021,356,924
아. 매도파생결합증권평가이익	839,182,122,123	625,047,751,342
자. 매도파생결합증권상환이익	1,558,410,839,357	894,467,669,027
차. 파생상품거래이익	939,525,572,551	763,148,243,844
카. 유형자산처분이익	17,692,801,759	3,389,228,919
타. 지분법이익	908,856,558	1,094,309,437

# 현금흐름표

제 50기 2010년 4월 1일부터 2011년 3월 31일까지  
제 49기 2009년 4월 1일부터 2010년 3월 31일까지

(단위: 원)

과목	제 50 (당) 기	제 49 (전) 기
파. 지분법적용투자주식처분이익	36,145,155	-
하.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배당금	(194,181,270)	-
거. 매도유가증권평가이익	520,407,615	436,222,199
너. 원본에 삽입할 유가증권이자	(261,858,609)	278,779,902
더. 별도예치금평가이익	28,603,044,522	27,868,047,036
러. 대손충당금환입	-	4,457,194,849
머. 기타대손충당금의 환입	403,162,544	60,649,544
버. 대출채권매각이익	12,701,116	2,719,596,878
서. 외화환산이익	12,612,635,149	-
<b>4.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b>	<b>272,099,105,920</b>	<b>(662,203,942,726)</b>
가. 예치금의 증가	(25,203,815,294)	(53,793,367,846)
나. 단기매매증권의 증가	(457,895,492,283)	(1,036,242,005,212)
다. 파생결합증권의 감소	152,458,111,581	316,707,632,694
라. 대출채권의 감소	(184,419,391,872)	(206,408,364,138)
마. 미수금의 감소	(16,953,933,655)	(20,279,722,396)
바. 미수수익의 감소(증가)	3,630,097,010	(148,221,981)
사. 선급금의 감소	(3,794,464,708)	(5,610,330,276)
아. 선급비용의 감소(증가)	418,059,555	(701,792,652)
자. 선급법인세 감소(증가)	(2,000,469,040)	4,607,080,677
차.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증가	(480,441,006)	(826,696,939)
카. 파생상품자산부채의 증감	(1,303,326,481,404)	(1,063,648,579,130)
타. 고객예수금의 증가(감소)	319,291,637,277	(41,473,707,555)
파. 매도유가증권의 증가	14,110,240,615	30,707,751,597
하. 매도파생결합증권의 증가	1,898,596,748,649	796,984,007,529
거. 미지급법인세의 증가(감소)	(59,870,235,399)	60,610,711,767
너. 미지급금의 증가(감소)	(9,772,272,103)	57,844,830,452
더. 미지급비용의 증가	822,867,830	4,525,629,808
러. 제세예수금의 증가	358,008,750	2,501,149,143
머. 선수수익의 증가(감소)	1,503,872,107	(123,283,370)
버. 기타부채의 증가	154,775,026,800	244,324,255
서. 이연법인세부채의 감소	(7,666,942,180)	(8,369,576,299)
여. 퇴직연금운용자산의 감소(증가)	(506,360,551)	245,926,235
저. 퇴직금의 지급	(164,297,496)	(1,469,907,452)
처. 환매조건부매도의 증가(감소)	(201,810,967,263)	501,912,568,363
<b>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b>	<b>(42,752,343,519)</b>	<b>(80,164,501,529)</b>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73,653,535,895	14,386,419,328
가. 유형자산의 처분	49,867,668,000	8,647,210,678
나. 보증금의 감소	3,625,794,180	-
다. 기타투자자산의 감소	8,859,317,113	-

(단위: 원)

과목	제 50 (당) 기	제 49 (전) 기
라. 매도가능증권의 감소	10,286,108,975	5,739,208,650
마.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감소	1,014,647,627	-
<b>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b>	<b>(116,405,879,414)</b>	<b>(94,550,920,857)</b>
가. 보증금의 증가	6,385,810,746	115,907,606
나. 기타투자자산의 증가	2,841,827,458	2,331,984,080
다. 유형자산의 취득	18,515,964,884	12,278,176,417
라. 무형자산의 증가	-	9,394,103,412
마. 매도가능증권의 증가	83,271,460,000	42,033,323,038
바.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증가	5,390,816,326	28,397,426,304
<b>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b>	<b>(202,391,187,759)</b>	<b>738,231,205,316</b>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197,471,141,512	841,173,996,582
가. 콜머니의 순증가	-	205,000,000,000
나. 차입금의 순증가	137,786,241,512	163,292,947,567
다. 사채의 발행	59,684,900,000	-
라. 환매조건부매도의 증가	-	472,881,049,015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399,862,329,271)	(102,942,791,266)
가. 콜머니의 순감소	85,000,000,000	-
나. 환매조건부매도의 감소	228,681,049,015	-
다. 배당금의 지급	79,003,148,000	80,097,104,860
라. 자기주식의 취득	-	13,480,246,600
마. 임대보증금의 감소	7,178,132,256	9,365,439,806
<b>IV. 현금의 증가 (I+II+III)</b>	<b>138,697,388,124</b>	<b>116,614,768,100</b>
<b>V. 기초의 현금</b>	<b>525,636,306,224</b>	<b>409,021,538,124</b>
<b>VI. 기말의 현금</b>	<b>664,333,694,348</b>	<b>525,636,306,224</b>

#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보고서

2011년 5월 18일

**대신증권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

우리는 첨부된 대신증권주식회사의 2011년 3월 31일 현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평가보고서에 대하여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 운영하고 그에 대한 운영실태 평가보고서를 작성할 책임은 대신증권주식회사의 경영자에게 있으며, 우리의 책임은 동 보고내용에 대하여 검토를 실시하고 검토결과를 보고하는데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자는 첨부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 2011년 3월 31일 현재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에 따라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우리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경영자가 제시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평가보고서에 대하여 회계감사보다는 낮은 수준의 확신을 얻을 수 있도록 검토절차를 계획하고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검토는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이해하고 경영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보고내용에 대한 질문 및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한적 범위 내에서 관련 문서의 확인 등의 절차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의 신뢰성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줄 수 있도록 제정한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본질적인 한계로 인하여 재무제표에 대한 중요한 왜곡표시를 적발하거나 예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보고내용을 기초로 미래기간의 내용을 추정시에는 상황의 변화 혹은 절차나 정책이 준수되지 않으므로써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부적절하게 되어 미래기간에 대한 평가 및 추정내용이 달라질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경영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에 대한 우리의 검토결과, 상기 경영자의 운영실태 보고내용이 중요성의 관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게 하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의 검토는 2011년 3월 31일 현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2011년 3월 31일 이후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본 검토보고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기타 다른 목적이거나 다른 이용자를 위하여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삼 일 회 계 법 인  
대 표 이 사 안 경 태



# 내부회계관리자의 운영실태 평가보고서

**대신증권주식회사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귀중**

본 내부회계관리자는 2011년 3월 31일 현재 동일자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였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은 내부회계관리자를 포함한 회사의 경영진에 있습니다. 본 내부회계관리자는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제표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재무제표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오류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적발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평가하였습니다. 본 내부회계관리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를 평가함에 있어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을 평가기준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본 내부회계관리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 2011년 3월 31일 현재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2011년 4월 21일

내부회계관리자 구희진  
대표이사 노정남

# 사업단장 및 본부장



**나재철**  
부사장  
기업금융사업단장, 인재역량센터장



**임홍재**  
전무  
IB서비스본부장



**김홍남**  
이사  
B&S부선본부장



**이현식**  
이사  
특직연금컨설팅본부장



**이창화**  
이사  
특직연금사업본부장



**김송규**  
상무  
인프라관리본부장



**구희진**  
전무  
Wholesale사업단장, Global사업본부장, 기획본부장



**박규상**  
상무  
Wholesale영업본부장



**김병철**  
전무  
IT서비스본부장



**김경식**  
감사위원



**송혁**  
상무  
비서실장



**조윤남**  
상무  
리서치센터장



**오익근**  
이사  
리스크관리본부장



**임병완**  
전무  
L&P센터장



**최종태**  
전무  
고객마케팅본부장



**김영운**  
전무  
Financial Clinic 사업단장



**한양현**  
전무  
동부지역본부장



**이관철**  
전무  
서부지역본부장



**이준우**  
상무  
중부지역본부장



**남해봉**  
상무  
강서지역본부장



**장우철**  
상무  
강북지역본부장



**조용현**  
상무  
강남지역본부장



**배영훈**  
상무  
파생영업본부장



**안경환**  
이사  
채권영업본부장



**유승덕**  
전무  
Capital Market사업단장, 자산운용본부장

# 회사 연혁

## 1962

07. 27 • 삼락증권주식회사 설립

## 1968

07. 08 • 중보증권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 1975

04. 22 • 대신증권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10. 01 • 서울증권거래소(현 한국거래소)에 주식상장

## 1984

08. 25 • 동경사무소 개설

09. 22 • 대신경제연구소 설립

## 1985

03. 06 • 홍콩 W.I.C.O.와 자본합작계약 체결

04. 12 • 일본 야마이찌 증권주식회사와 자본합작계약 체결

05. 28 • 본사사옥 여의도로 이전

## 1988

03. 24 • 대신투자자문주식회사 설립

## 1990

07. 20 • 대신송춘문화재단 설립

## 1996

07. 01 • 대신투자자문주식회사 상호변경 (변경후: 대신투자신탁운용(주) → 대신자산운용(주))

11. 23 • 국내 최초 종합계좌 시스템 가동 (One Card System)

## 1997

04. 12 • 홈트레이딩 주문 시스템 Open (CYBOS DOS버전 오픈)

## 1998

06. 09 • 대형사 중 최초로 인터넷 웹 트레이딩 개시

## 1999

08. 31 • 자본금 증자 (유상, 제3자 배정) - 일본 스미토모생명과 전략적 제휴

11. 03 • 자본금 증자 (유상, 주주배정)

## 2002

09. 16 • 자사주 보통주 20만주 이익소각 완료

## 2003

07. 21 • 배당지수(KODI) 구성종목에 선정

09. 04 •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록

12. 01 • 기업지배구조주가지수(KOGI) 구성종목에 선정

## 2004

03. 10 • 증권거래소 우수 컴플라이언스 회원상 수상

06. 03 • 기업지배구조 우수기업 선정 (한국거래소)

06. 23 • 투자일임업 등록

## 2005

02. 25 • 장외파생금융상품업 허가

09. 26 • 기업설명회 개최 (뉴욕 등 미국 주요도시)

12. 09 • 신탁업 인가

12. 09 • 퇴직연금사업자 등록

12. 17 • 자본금 증자 (유상, 제3자 배정) - 일본 스팩스 에셋매니지먼트와 전략적 제휴

## 2006

08. 21 • 차세대 ARS 시스템 오픈

08. 29 • 일본 닛코 코디알 그룹과 전략적 제휴

10. 16 • 일본 닛코 코디알 그룹과 자본제휴

## 2007

11. 03 • 런던증권거래소 2천만 GDS상장 (자본금 500억원 증가)

## 2008

02. 13 • 홍콩현지법인 'Daishin Securities Asia Limited' 설립

05. 26 • 중국 상해사무소 개설

09. 12 • 대신폐기수제1호 사모투자전문회사(PEF) 신설편입에 따른 계열회사 추가

## 2009

02. 04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금융투자업으로 업무 전환

02. 05 • 홍콩현지법인 영업 개시

04. 22 • 자금이체업무(소액결제)를 위한 금융결제원 사업 특별참가

05. 04 • 차세대 금융시스템 오픈

08. 19 • 대신에스비사모투자전문회사(PEF) 신설편입에 따른 계열회사 추가

10. 20 • 다우존스 한국지속가능경영지수 (DJSI KOREA) 구성종목에 선정

12. 18 • 금융투자업 변경인가: 주권외기초 장내파생 상품 대상 투자매매·중개업(국내) 추가

##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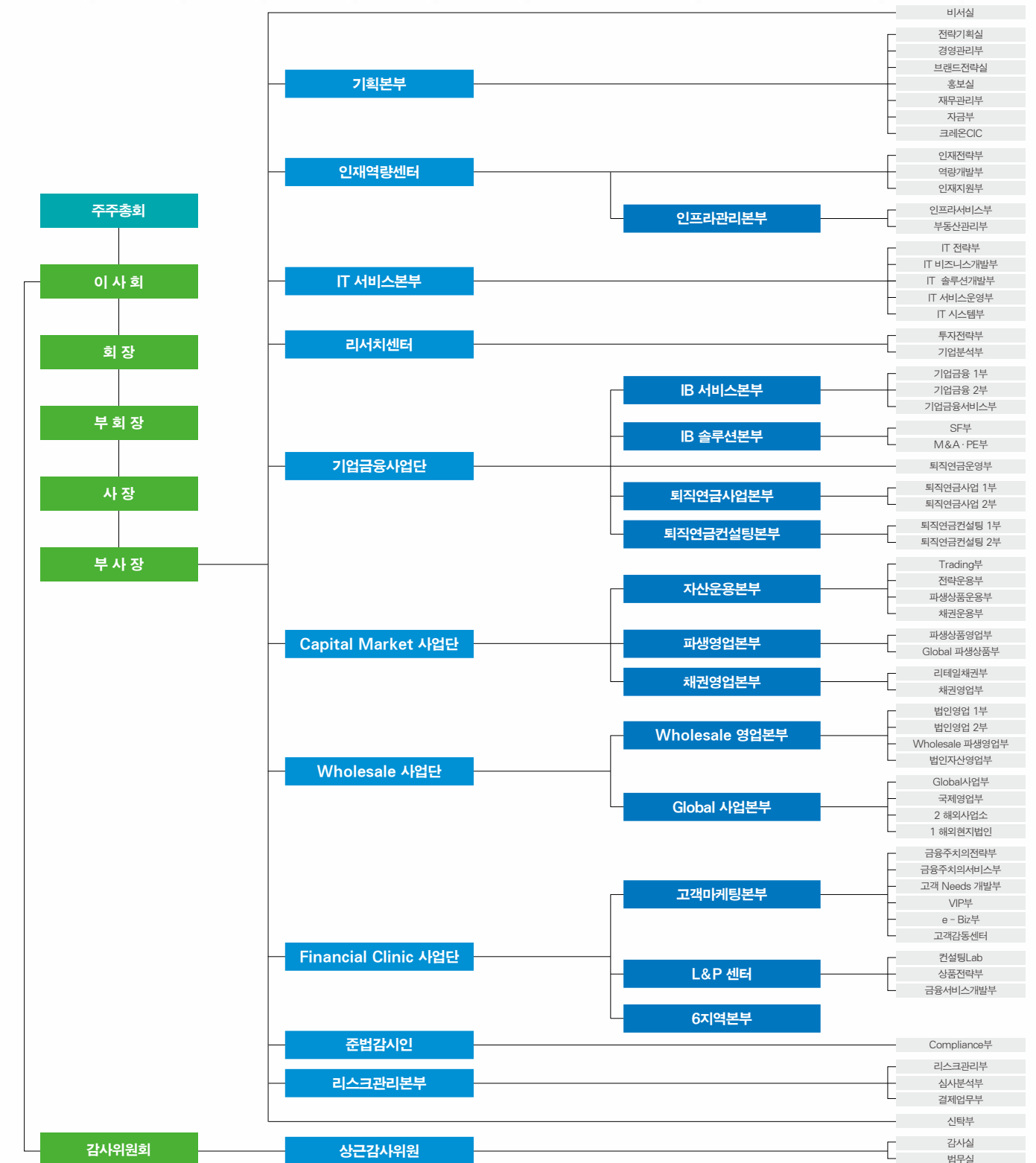
04. 12 • 대신·홍국제일호사모투자전문회사(PEF) 신설편입에 따른 계열회사 추가

## 2011

03. 04 • 코에프씨 대신아주아이비 그룹스 캠프 2010의 7호 사모투자전문회사(PEF) 신설편입에 따른 계열회사 추가

# 조직도

4사업단 14본부 3센터 6지역본부, 6실 53부1센터 2해외사무소 1해외현지법인 (2011. 4. 1 기준)



# CORPORATE DATA

회사명	대신증권 Daishin Securities Co., Ltd.
설립일	1962년 6월 20일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8 대신증권 빌딩 Tel: (02) 769-2000, Fax: (02) 769-2815
홈페이지	www.daishin.com
인원수	2,245명 (2011년 3월말 기준)
자본금	4,349억원 (2011년 3월말 기준)
자기자본	1조 7,081억원 (2011년 3월말 기준)
자산총계	8조 7,972억원 (2011년 3월말 기준)
주식수	보통주: 50,773,400주 제1종 우선주: 26,000,000주 제2종 우선주: 10,000,000주
영업점	국내 116개 지점, 1개 해외현지법인, 2개 해외사무소
해외 네트워크	<b>홍콩 현지법인 (Daishin Securities Asia Limited)</b> 28th FL, 8th Queen's Road, Central, HK Tel: +852-2167-8730, Fax: +852-2167-8911 <b>일본 동경사무소</b> 8th FL, NAX Bldg, 1-3-2, Shinkawa, Chuo-ku, Tokyo, 104-0033, Japan Tel: +81-3-3551-8088, Fax: +81-3-3551-5533 <b>중국 상해사무소</b> Room 809, Zhongrong Jasper Tower No.8, Central of Yincheng Road, Shanghai, 200120, PRC Tel: +86-21-5010-5298, Fax: +86-21-5010-5296
계열사	대신자산운용 (www.ditm.co.kr) 대신경제연구소 (www.derico.kr) 홍콩 현지법인 (Daishin Securities Asia Limited)

#### ©대신증권

본 보고서는 대신증권(이하 회사)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회사의 서면동의 없이 복사 또는 타인에게 재배포될 수 없으며 회사에서 의도한 정보 제공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보고서는 회사가 작성일 현재 입수 가능한 정보에 기초하였으나,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함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본 보고서에 포함된 정보는 회사와 관계기업 및 기관의 주장으로 간주될 수 없으며 어떠한 법적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